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8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강 성 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8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강 성 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중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8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강 성 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일찍이 칼 뢰비트(K. Löwith)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비교 연구의 대표적인 고전에 속하는 자신의 저작 『베버와 마르크스』(1932년에 처음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대한 과학도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즉, 부르주아 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향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는 막스 베버와 칼 마르크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영역은 동일하다. 즉, 근대의 경제 및 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이다.(칼 뢰비트 지음, 이상을 옮김, 『베버와 마르크스』, 문예출판사, 1992, p.8)

요컨대, 현실 사회에 대한 과학에는 부르주아 사회학과 프롤레타리아적 마르크스주의가 있으며, 이 두 연구 방향을 각각 대표하는 사상가인 베버와 마르크스의 공통된 연구영역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경제 및 사회 체제라는 것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자본주의 연구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관점은 여러모로 대비된다. 특히 자본주의 발생 및 발전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 및 변화가 봉건주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의 원동력이라 보았다. 이른바 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힘이 사회를 움직였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베버는 자본주의의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지니게 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어떻게 합리적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의 정신’의 윤리적 기반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단순화하여 말하면 베버는 합리적 자

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배양된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발생, 성장하였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많은 점에서 마르크스의 저서, 특히 『경제학-철학 수고』(1844)와 대비된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본 사업의 1차년도 연구 대상서로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수고』를 다룬 바 있는데, 2차년도 연구 대상서인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앞에서 말한 ‘대비’를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필자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베버의 저작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발표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끈임 없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어 왔다. 필자는 우리 연구소의 본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추어 이러한 논란과 해석 및 평가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차원에서 분석과 설명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비교적 짧은 저서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원래 논문이었으며,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두 차례로 나누어 처음 소개된 후에 베버는 이를 재출간할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는데, 특히 거의 본문의 분량에 버금가는 많은 양의 주석을 첨가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이 책의 번역서로는 영어판인 경우, 1930년 탈코트 파슨스(T. Parsons)가 처음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 독보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서의 경우는 1958년에 처음 소개된 이래로 필자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단행본 이외에 베버의 다른 저서들과 함께 묶여 소개된 것까지 포함하여 다섯 종류나 있다.

필자는 여러 번역서를 참조하기는 하였지만, 인용하는 경우는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96년판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인용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런 보잘 것 없는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지만 감사해야 분들이 많다. 우선 우리 연구소 사업을 총지휘하신 백종현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분의 재촉과 독려가 있었기에 이런 형태로나마 일정에 맞추어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를 이끌어주며 항상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준 동료 연구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매번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교정해준 후배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더 고쳐 써야 할 곳이 있을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후에라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

2006년 5월
강성화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베버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6
1.4 저작	7
1.4.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7
1.4.2 경제와 사회	8
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해제	9
2.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요약	9
2.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해설	9
2.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상세 목차	12
2.4 주요 용어	13
2.4.1 자본주의 정신	13
2.4.2 직업	14
2.4.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14
2.4.4 예정설	15
제2부 철학 지식지도	17
1. 철학자 지식지도	17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18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20
3.1 자본주의 정신	20
3.2 직업	20
3.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21
3.4 예정설	22
3.5 금욕주의	23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24
 제3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내용 분석 연구 ...	29
1. 자본주의 정신	29
1.1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신	30
1.1.1 자본주의의 유형	30
1.1.2 합리화와 근대 자본주의	31
1.1.2.1 서구문화의 합리주의	32
1.1.2.2 합리적 자본주의의 출현	33
1.1.2.3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	34
1.2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과 그 특징	40
1.2.1 베버의 의문: 부르주아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친화관계	41
1.2.1.1 부르주아 계급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선택	41
1.2.1.2 종파와 직업적 분화의 관계	43
1.2.2 의문에 대한 궁극적 해명 방식	44
1.2.3 자본주의 정신의 개념과 특징	46
1.2.3.1 프랭클린의 말과 ‘자본주의 정신’	46
1.2.3.2 하나의 에토스로서의 자본주의 정신	47
1.2.3.3 자본주의 정신의 특징	49
2. 직업	57
2.1 고대어에서의 직업 개념	58

2.1.1 히브리어	58
2.1.2 회랍어와 라틴어	59
2.2 루터의 직업 개념	60
2.2.1 세속적 의미로서의 Beruf	60
2.2.2 종교적 의미를 갖는 노동	61
2.2.3 토마스 아퀴나스적 직업 개념 비판	62
2.2.4 세속적 직업 노동의 의의: 세속적 의무의 이행	63
2.2.5 모든 직업의 동가치성	63
2.2.6 루터주의의 한계	65
2.2.6.1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련성 결여	65
2.2.6.2 전통주의로의 후퇴	66
2.2.7 탐구 과제의 변경: 루터주의에서 칼뱅주의로	68
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70
3.1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의 대표적 형태	70
3.1.1 예정설	70
3.1.1.1 예정설에 대한 접근 방식	70
3.1.1.2 예정설의 역사적 영향	71
3.1.1.3 예정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2
3.1.1.4 예정설과 칼뱅주의: 칼뱅주의 예정설의 성립	73
3.1.1.5 칼뱅주의 예정설의 주요 특징	75
3.1.1.6 예정설의 실천적, 심리적 영향	77
3.1.2 금욕주의	87
3.1.2.1 금욕주의의 유래	87
3.1.2.2 가톨릭 금욕주의와의 비교	89
3.2 칼뱅주의 이외의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형태	91
3.2.1 경건주의	93
3.2.1.1 칼뱅주의와의 관계	93
3.2.1.2 경건주의의 난점	94

3.2.2 메서디즘	96
3.2.2.1 메서디즘의 특성	96
3.2.2.2 메서디즘의 난점	97
3.2.3 침례교 계통의 교파들	98
3.2.3.1 칼뱅주의와의 관계	98
3.2.3.2 침례교 교파의 금욕주의의 한계	98
3.3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	99
3.3.1 가장 큰 죄로서의 시간의 낭비	99
3.3.2 금욕의 수단으로서의 노동	100
3.3.3 삶의 자기 목적으로서의 노동	101
3.3.4 신의 명령으로서의 부의 추구: 이윤추구의 섭리적 해석	102
3.3.5 기업가의 활동의 정당화	103
3.3.6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 문제	104
3.3.7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미친 영향	105
참고문헌	107

일 러 두 기

1. 베버의 해당 텍스트를 인용할 때 우리말 번역서와 독일어 원전 순서로 괄호 안에 인용 면수를 병기하였다. 예컨대 ‘(p.37/S.33)’의 경우 우리말 번역서 37쪽, 독일어 원전 33쪽을 뜻한다. 참고로 인용된 우리말 번역서는 막스 베버 지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1996)이고 독일어 원전은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us :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1(J. C. B. Mohr, Tübingen, 1920)이다.

2,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e1.1)’ 또는 ‘(q1.2)’ 등은 철학 지식 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e’는 해설을, ‘q’는 인용을 의미한다.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e1.1.1)’, ‘(q1.1.2)’는 각각 1.1 항목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해설하는 부분, 1.1. 항목의 두 번째 단락으로서 인용하는 부분임을 의미하는 표기이다.

3. 인용문 안에 보이는 ‘// ’ 표시는 독일어 원전에서 단락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베버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1864년 독일 에르푸르트 출생. 베버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주류를 이룬 신역사학과 또는 강단사회주의자와 대결하였으며, G. 슈플러와의 가치판단 논쟁을 통하여 역사학파가 가지는 이론적 약점을 지적하고, 그 극복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자신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그의 방법론상의 핵심 개념은 과학과 가치판단을 명확히 구별하는 이른바 ‘가치중립성’(Wertfreiheit), 사회현상에 대해서 인식주체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이념형’(Idealtypus) 등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작업에 기초하여 그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사회과학의 인식론은 역사학파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즉, 마르크스주의를 유물사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념형이라고 봄으로써 이를 상대화하였고, 또 여러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역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유물사관에 대하여 종교나 정치 영역에서의 행위의 동기와 관련시켜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은 그 성과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근대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생을,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교리 하에서 금욕과 근로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태도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근대 유럽과 비교하는 관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원류가 되는 고대 유대교 및 불교, 유교 등과 같은 비(非)그리스도교 세계에서의 종교와 사회와의 관련도 추구하였다.

1.2 생애 해설

막스 베버(Max Weber ; 1864-1920)는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치는 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등 학문과 문화 일반에 대해 박식하고도 깊이 있는 조예를 가진 학자였다. 그는 19세기 후반기의 서구 사회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철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년시절

베버는 1864년 4월 21일 독일 중부의 작은 도시인 에르푸르트에서 아버지 막스 베버와 어머니 헬레네 사이에 태어난 8남매 중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자 베버가(家)의 계승자가 될 이 장남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었다. 아버지 막스 베버는 에어푸르트 시청의 공무원이었는데, 1869년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여 되었고, 이에 따라 베버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주하게 된다. 종교적이고 인문학적 분위기의 아내와 달리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 정치를 중시하는 당시 독일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정치가였다.

8세가 되어 막스 베버는 왕립 김나지움에 진학한다. 김나지움 시절 베버는 다독가로서 역사서적들, 그리스-로마 고전들,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칸트 등의 철학 작품들, 그리고 괴테의 문학작품을 즐겨 탐독한다. 여러 방면의 독서를 할 수 있게 한 능력도 겸비하여, 가령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물론이고 이미 이 시절에 구약성서를 원어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헤브루어를 습득하고 있었다고 한다. 베버의 부인으로서 그의 전기를 쓴 마리

안네 베버는 이 시절의 베버를 그의 모친이 전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 풍부한 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책이다. 막스는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역사서와 고대의 고전작가의 작품, 특히 철학서적에 관심을 두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칸트를 탐독하였다. 일찍이 12세 때에 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안티 마키아벨리』(프리드리히 왕이 쓴 『군주론』 비판서)를 읽었으며, 루터의 저작집도 훑어보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마리안네 베버, 『막스 베버의 생애』, 일신서적, 1995, p.48)

그는 성년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학교 공부에는 힘쓰지 않고 학업에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령 3학년 때에는 수업 중에 책상 아래에다가 40권으로 된 괴테 전집을 놓아두고 전부 읽어버렸을 정도였다.

1877년 초 만14세가 채 되지 않았을 시기에 그는 어울리지 않게도 두 편의 역사 논문을 썼다. 스스로 말하기를 ‘많은 사료에 의거하여,’ 「황제와 법황을 주안으로 삼은 독일사의 전개」와 「콘스탄티누스에서 민족이 동까지의 로마 제정시대」라는 논문은 “미흡한 필자 자신이 그 양친과 그 형제 및 그 외의 사람에게 바친다.”라는 헌사를 담고 있다. 2년 후 그는 「인도 게르만 여러 국민에 있어서의 민족 성격, 민족 발전 및 민족사의 고찰」을 썼는데, 이 논문은 이미 하나의 ‘역사철학적’ 사색의 성과로서 문화사 전체의 이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며 그 ‘발전법칙’을 뚜렷이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마리안네 베버, p.48-9) 이 시기에 베버는 아버지와 교류하던 당대의 명인들과 자주 접촉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지적인 체험은 후에 관심 영역의 다양함과 광범위함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학시절: 학생 및 교수 시절

1882년 그는 베를린에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외조부가 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로 간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제1전공으로 법학을 선택하였지만, 그 또한 법학 외에 경제학, 역사, 철학, 신학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883년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대학 수학 도중에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일 년간의 군대 생활을 체험했다. 슈트라스부르크에 체류 중에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지질학자 베네케(E. W. Benecke)와 역사학자 바움가르텐(Hermann Baumgarten)과 자주 접촉하였으며, 이들과의 접촉은 이후 그의 학문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듬해 병역을 마치고 이번에는 베를린대학으로 옮겨 학업을 계속하였는데, 그의 학문적 관심은 법률, 경제, 철학,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쳤으나 특히 역사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1889년 베를린 대학에서 「중세 상업 사회의 역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891년에는 「국가 공법 및 사법(私法)의 의미에서 본 로마 농업사」라는 취직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로마 제국의 농업에 관한 중요한 연구로서 후세의 사사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으로 그는 1892년 베를린대학에서 상법 및 로마법의 강사가 되었으며 이후 그의 대학 교수시절이 시작되게 되었다.

1893년 가을 그는 마리안네와 결혼했다. 사촌 누나의 딸인 마리안네는 그녀 자신도 학자로서 이후 27년간 잠시도 베버의 곁을 떠나지 않은 평생의 동반자였다. 마리안네 베버는 베버 서거 후 베버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그의 유고 정리를 하고, 그의 저작집을 편찬했다. 또 한편으로는 방대한 전기인 『막스 베버의 생애』를 저술하여 1926년에 내놓았다.

이 전기에는 베버의 성장, 성격, 가정,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의 형성, 학문적 활동까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마리안네가 베버의 가정적 동반자인 동시에 사상세계에서도 그와 호흡을 같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베를린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베버의 관심은 점점 더 경제학 연구에 기울어졌으며, 이 시기에 쓴 논문들도 대체로 경제학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1892년에 발표된 「동부 독일의 농업노동자의 상태」, 「국민국가와 경제정책」 등은 이러한 그의 관심을 잘 나타내 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189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추천을 받게 되고, 이듬해 5월에 동 대학 경제학 정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프라이부르크에서 리케르트(Heinrich Rickert)와 각별한 친교를 맺었는데, 리케르트는 베버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어 베버는 1896년 자신의 최초의 모교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초빙되어 은사인 크니이스(Karl Knies)의 후계자가 되었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는 특히 공법학자인 게오르크 옐리네크(G. Jellineck), 신학자인 에른스트 트뢴취(E. Trötsch) 등과 친교가 있었다.

1897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많은 연구가 본격화 될 무렵 그에게 심각한 신경질환이 발병하였다. 또한 그 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던 아버지가 이해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그의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빠져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로 한동안 이탈리아 등지에서 체류하여 요양하였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았고, 1903년 하이델베르크로 귀환함과 동시에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대학재임 기간은 형식상으로는 13년이지만, 나중의 4년은 전연 강의를 할 수 없었다.

교수직 사퇴 이후

병으로 대학을 떠난 이후 그의 건강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학문 연구는 이전에 더욱 힘차게 추진되었다.

1904년 이래로 그는 베르너 쏴바르트(W. Sombart)와 함께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지의 편집을 맡아보게 되었다. 1904년 8월에 부인과 함께 3개월 간 미국을 여행하였고, 귀국하여서는 바로 이 잡지의 공동편집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그는 대학을 떠났지만, 이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지에 계속해서 귀중한 연구를 발표했다. 마리아네 베버에 따르면, “공동편집자로서 베버는 우선 이 잡지에 끊임없이 원고를 공급해야 하는 강한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마리아네 베버, p.349)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화과학의 논리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루돌프 쉬타믈러의

유물사관의 극복」, 「세계 종교의 경제윤리 문제」 등이 학술논문들이 이 잡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그의 연구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득이 많은 시기라 할 수 있었다.

1914년 그의 나이 50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무를 지원하여 하이델베르크 예지야전 병원에 근무하였으나, 곧 돌아와서 빌헬름 2세의 전쟁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비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강화조약에 충격을 받고 1918년에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1918년 여름에는 빈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건강악화 대학 교단을 떠난 지 15년만의 일이었다. 다음 해에는 뮌헨 대학 류요 브렌타노(Lujo Brentano)의 후임자로 초빙되어 사회학 및 사회경제사 강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시 대학에 들어가 활동한 시기는 채 2년이 되지 못했다. 1920년 봄부터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고, 그 해 6월 14일에 56세를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3 생애 연보

1864년: 4월21일 독일 중부의 소도시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남.

1882년: 베를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법철학을 제1 전공으로 택함. 2년 동안 학생조합에서 활동함.

1889년: 골트슈미트 교수 및 크나이스트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음.

1892년: 베를린 대학에서 골트슈미트 교수를 대신하여 강의 및 세미나를 맡음.

189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추천받았고, 다음 해 동 대학에 취임.

189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경제학 교수로 초빙.

- 1898년: 질병으로 대학으로부터 휴가를 얻음.
- 1903년: 질병이 재발, 교수직을 사퇴.
- 1904-05년: 2회에 걸쳐 논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지에 발표함. 1905년 러시아 제1혁명이 일어남. 베버는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자유주의화에 기대를 가짐.
- 1918년: 빈 대학 초청으로 한 학기 강의.
- 1919년: 뮌헨 대학에서 사회학 및 사회경제사 강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 발표.
- 1920년: 6월 14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남.
- 1920-21년: 부인 마리아네 베버의 편찬으로 『종교사회학 논문집』(3권) 출간.
- 1922년: 부인 마리아네 베버의 편찬으로 『과학론 논문집』, 『경제와 사회』(2권) 출간.
- 1956년: 빈켈만(J. Winkelmann)의 편찬으로 『사회학 및 사회정책 논문집』 출간.

1.4 저작

1.4.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한국어 표준본: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1988.

영어 표준본: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 Parson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76.

원어 표준본: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us :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J. C. B. Mohr, Tübingen, 1920.

1.4.2 경제와 사회

한국어 표준본: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박성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영어 표준본:

원어 표준본: Max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hrsg. von J. Winckelmann, Fünfte Auflage, J. C. B. Mohr, Tübingen, 1972.

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해제

2.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요약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원래 논문으로서 1904년과 1905년에 두 차례로 나뉘어 처음 발표되었던 것인데 베버의 사망 직후인 1920-1년에 3권으로 출판된 베버의 『종교사회학 논문집』 제1권(1920) 첫 부분에 실려 지금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논문으로 발표될 때부터 당시 서구의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고전이 되어 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 시민계급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 개혁을 수용한 사람들이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금전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윤리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향락, 방탕,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금욕하는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얻은 자산의 양은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는 재산의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돕는다. 이와 같이 신이 내리신 직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야 한다는 청교도적 세계관은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

2.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해설

1904년 베버는 그의 아내 마리안네와 함께 3개월 간 미국을 여행하였는데, 이 여행 전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논문의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여행 후 귀국해서는 쾰른바르트

(W. Sombart)와 공동으로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이라는 학술지의 편집을 맡게 되었다. 공동편집자로서 베버는 우선 이 잡지에 끊임없이 원고를 공급해야 하는 강한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많은 논문들을 이 잡지에 게재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원래 논문으로서 1904년과 1905년에 두 차례로 나뉘어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지에 처음 발표되었던 것인데 베버의 사망 직후인 1920-1년에 3권으로 출판된 베버의 『종교사회학 논문집』 제1권(1920) 첫 부분에 실려 지금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되었다. 1920년에 『종교사회학 논문집』에 실린 글은 원래의 논문을 수정, 보완하고, 거기다가 거의 본문의 분량에 미칠 정도의 많은 주석을 베버 스스로 붙여 놓은 것이었다.(1930년 탈코트 파슨스(T. Parsons)가 영어로 처음 번역한 책의 1976년판에 따를 때, 미주로 처리한 주석의 양이 무려 100여 쪽에 이른다). 이 책은 논문으로 발표될 때부터 당시 서구의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고전이 되어 있다. 이 책의 대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욕, 금전욕, 망설이지 않는 영리 충동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있었다. 일체의 규범에 종속하는 것을 배제하고 생활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화를 취득하는 것, 즉 투기 자본주의, 약탈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 기타 이것에 속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경제 구조의 고유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모험가적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에서,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영리추구를 긍정한 것은 자명한 일이 결코 아니었으며 어느 일정한 시대 이후 성립된 것으로 그것도 서구에서만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겨나기 위해서 서양의 시민계급은 어느 특정한 생활태도의 훈련을 받고 합리적이며 방법적인 노동을 도덕적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돈벌이를 자신의 물질적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

라 삶의 목적 자체'로 여기는 소명의식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해 비로소 노동과 이윤추구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금욕적 생활과 저축 관념을 매개로 근대적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를 베버는 지적한다. 칼뱅주의는 인간의 운명은 태초로부터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직업 노동과 부의 추구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칼뱅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의 내용을 베버가 연구한 바대로 요약하면, 첫째,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구원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둘째, 신자들이 자신도 선택된 자들 가운데 들어 있는가의 확인의 문제이다. 셋째, 이에 대한 일반 신도들의 해답은 기독교적 소명(召命)에 따른 직업 활동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자가 되는 현세적 징후라고 생각하였다. 넷째, 칼뱅주의 윤리관에는 근면, 검소, 성실 등 '세속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윤을 저축하고 생산 활동에 재투자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이것이 서구인의 직업의식과 자본주의 정신의 합리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 부유해지도록 노동해야 한다는 청교도적 관념이 성립한다. 여기서 부의 추구가 사악한 것으로서 위험시 되는 것은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일 경우에만, 즉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로 한정된다. 신을 위한 경우라면 부의 추구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게는 명령되는 바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부는 더욱 증식되어야 한다. 이윤추구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근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했다. 즉 영리활동은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 되었다.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베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베버의 생각과는 달리 동아시아 나라에서 유교윤리가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투웨이밍(杜維明) 교수가 대표적인 논자이다. 유교 사상의 권위자인 투웨이밍 교수는 ‘신유교 윤리’(the New Confucian Ethic)라는 말로써 금세기 후반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이 고도 성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이를 서구 선진국의 자본주의 정신의 청교도 윤리에 버금가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에 관한 베버의 문제의식을 동양사회에 접목시키는 시도로서 베버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되었다는 주장에 맞서 베버 이론이 지닌 비현실적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주장들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령 마이클 노박(M. Novak)은 다분히 베버를 의식한 책 제목을 붙인 최근의 한 저서(M. 노박,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Catholic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한국경제신문사, 1994)에서 일본이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며 다소 빈정거리는 투로 베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상세 목차

머리말 (Vorbemerkung)

I. 문제

1. 종파와 계층
2. 자본주의 정신
3. 루터의 직업개념, 탐구의 과제

II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

1. 현세적 금욕주의의 종교적 토대
2.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

참고 1: 본래 위 목차의 ‘머리말’은 논문 형태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실려 있던 베버의 『종교사회학 논문집』(1920-1) 전체의 머리말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영어판 및 우리말 번역서 모두 이 ‘머리말’을 ‘저자 서문’ 또는 ‘Author's Introduction’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본 앞부분에 넣고 있다.

참고 2: 1920년 베버 사망 직후 나온 『종교사회학 논문집』 제1권은 크게 네 부분, 즉 ‘머리말’(S. 1-1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S. 17-206) 이외에 ‘프로테스탄티즘 종파와 자본주의 정신’(207-236), ‘세계종교의 경제윤리’(S. 237-57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번째 부분은 제2권 및 제3권으로 계속된다.

2.4 주요 용어

2.4.1 자본주의 정신

왜 근대의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유독 유럽에서만 출현하였는가? 베버는 근대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기원을 비교문명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모험가적’ 자본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존재했다. 서부 유럽이 매우 독특했던 점은 모험가적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합리적’ 자본주의의 출현에 있다.

베버는 서구의 합리적 자본주의의 특징적 현상으로 ‘형식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정기적 시장에 맞추어진 합리

적 산업조직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서구에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베버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낳은 것, 그리하여 합리적 자본주의를 가능케 한 것은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합리적 정신, 생활태도의 합리화,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윤리 등, 한마디로 ‘자본주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4.2 직업

세속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Beruf나 영어의 calling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종교적 관념, 즉 신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라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한 민족들의 경우에 특히 잘 나타나지만, 고전적 고대에서나 가톨릭이 우세한 민족들에게서는 이러한 어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직업을 의미하는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의 Beruf라는 말은 성경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성경 자체의 함축된 정신이 아니라 번역자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인데, 베버는 이 단어가 <시락서>에 대한 루터의 번역 중 한 구절(21장 20, 21절)에서 현재의 의미로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루터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세속적인 의무의 수행이야 말로 신에게 축복받는 유일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반드시 평등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2.4.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칼뱅주의는 프로테스탄트교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칼뱅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의 내용을 베버가 연구한 바에 따라 요약하면, 첫째,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구원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둘째, 신자들이 자신도 선택된 자들 가운데 들어 있는가의 확인

의 문제이다. 셋째, 이에 대한 일반 신도들의 해답은 기독교적 소명(召命)에 따른 직업 활동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자가 되는 현세적 징후라고 생각하였다. 넷째, 칼뱅주의 윤리관에는 근면, 검소, 성실 등 ‘세속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윤을 저축하고 생산 활동에 재투자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이것이 서구인의 직업의식과 자본주의 정신의 합리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4 예정설

칼뱅주의를 프로테스탄트교의 대표적 사례로 고찰할 때, 이 칼뱅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교리적 특징은 예정설과 금욕주의라 할 수 있다.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말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전통적 문제에 대하여 신의 구원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예정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며 변경 불가능한 영역이다. 운명을 변경하거나 알고 하는 것 자체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이처럼 예정설에서 신의 존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변모하며, 모든 피조물은 ‘메울 수 없는 심연으로’ 신과 격리되어 있다. 여기서 신의 이러한 극단적 비인격성과 함께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의 영역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신에 대한, 특히 신의 구원의 영역에 대한 불가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베버
- 토픽 ID: mod_weber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co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Max Weber

영어 이름:

생애 요약: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생애 연보:

인물 사진:



원어 웹사이트:

<http://www.dhm.de/lemo/html/biografien/WeberMax/>

영어 웹사이트:

<http://www.faculty.rsu.edu/~felwell/Theorists/Weber/Whome.htm>

한국어 웹사이트: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칼뱅(mod_calvin)

루터(mod_luther)

기여한 철학 분야: 정치철학(con_pol_phil),

윤리학(con_ethics),

종교철학(con_rel_phil),

역사철학(con_his_phil)

기여한 철학 학파:

기여한 철학 이론:

주요 저작: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con_weber_ethic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on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영어 제목: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1920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책표지 그림:

원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디지털 텍스트:

<http://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weber/protestant-ethic/index.htm>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크맵: con_weber_ethic_km.xtm

연관 관계

저자: 베버(con_weber)

관계된 철학자: 칼뱅(mod_calvin),

루터(mod_luther)

기여한 철학 분야: 정치철학(con_pol_phil),

윤리학(con_ethics),

종교철학(con_rel_phil),

역사철학(con_his_phil)

기여한 철학 학파:

기여한 철학 이론: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자본주의 정신

- 토픽명: 자본주의 정신(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자본주의 정신
- 상위 토픽 ID: t_con_spirit_capitalism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Geist des Kapitalismus

영어 용어: spirit of capitalism

한자 표기: 資本主義情神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베버(con_weber)

사용한 철학 문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con_weber_ethic)

사용한 내용 토픽: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과 그 특징(c.1.2)

3.2 직업

- 토픽명: 직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소명

- 상위 토픽 ID: t_con_call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Beruf

영어 용어: calling

한자 표기: 職業

용어 설명: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베버(con_weber)

사용한 철학 문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con_weber_ethic)

사용한 내용 토픽: 루터의 직업 개념(c.2.2)

3.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 토픽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프로테스탄트 윤리
- 상위 토픽 ID: t_con_protestant_ethic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ie protestantische Ethik

영어 용어: protestant ethic

한자 표기: 프로테스티즘의 倫理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베버(con_weber)

사용한 철학 문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con_weber_ethic)

사용한 내용 토픽: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c.3)

3.4 예정설

- 토픽명: 예정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예정
- 상위 토픽 ID: t_con_predestinatio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Lehre von der Gnadenwahl

영어 용어: doctrine of predestination

한자 표기: 豫定說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베버(con_weber)

사용한 철학 문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con_weber_ethic)

사용한 내용 토픽: 예정설(c3.1.1)

3.5 금욕주의

- 토픽명: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토픽 ID: t5
- 상위 토픽명: 금욕
- 상위 토픽 ID: t_con_asceticism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Askese

영어 용어: asceticism

한자 표기: 禁慾主義

용어 설명: 3부 3.1.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3부 3.1.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베버(con_weber)

사용한 철학 문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con_weber_ethic)

사용한 내용 토픽: 금욕주의(c3.1.2)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자본주의

- 1.1 합리화와 근대 자본주의 (e1.1.2.1)
 - 1.1.1 서구문화의 합리주의 (e1.1.2.1.1 / q1.1.2.1.2)
 - 1.1.2 합리적 자본주의의 출현 (e1.1.2.2.1 / q1.1.2.2.2)
 - 1.1.3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 (e1.1.2.3.1)
 - 1.1.3.1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 (e1.1.2.3.1.1 / e1.1.2.3.1.2 / q1.1.2.3.1.3 / q1.1.2.3.1.4)
 - 1.1.3.2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이용 (e1.1.2.3.2.1 / q1.1.2.3.2.2)
 - 1.1.3.3 합리적 부기 (e1.1.2.3.3.1 / q1.1.2.3.3.2-3)
 - 1.1.3.4 합리적 법과 행정 (e1.1.2.3.4.1 / q1.1.2.3.4.2)
- 1.2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과 그 특징 (e1.2.1)
 - 1.2.1 베버의 의문 (e1.2.1.1 / q1.2.1.2)
 - 1.2.1.1 부르주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선택 (e1.2.1.1.1 / q1.1.2.1.2)
 - 1.2.1.2 종파와 직업적 분화의 관계 (e1.2.1.2.1 / q1.2.1.2.2)
 - 1.2.2 의문에 대한 궁극적 해명 방식 (e1.2.2.1 / e1.2.2.3 / q1.2.2.2 / q1.2.2.4)
 - 1.2.3 자본주의 정신의 개념과 특징
 - 1.2.3.1 프랭클린의 말과 자본주의 정신 (e1.2.3.1.1 / q1.2.3.1.2)
 - 1.2.3.2 하나의 에토스로서의 자본주의 정신 (e1.2.3.2.1 / q1.2.3.2.2/ q1.2.3.2.3)
 - 1.2.3.3 자본주의 정신의 특징
 - 1.2.3.3.1 이윤추구의 옹호 (e1.2.3.3.1.1 / q1.2.3.3.1.2 / q1.2.3.3.1.3)
 - 1.2.3.3.2 노동자의 근면성 (e1.2.3.3.2.1 / q1.2.3.3.2.2)
 - 1.2.3.3.3 엄격한 규율과 훈련에 의한 경제 행위 (e1.2.3.3.3.1 / q1.2.3.3.3.2)

1.2.3.3.4 경제윤리적 보편주의 (e1.2.3.3.4.1 / q1.2.3.3.4.2-3)

1.2.3.3.5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e1.2.3.3.5.1 / e1.2.3.3.5.2
/ q1.2.3.3.5.3-4)

2. 직업

2.1 고대어에서의 직업 개념

2.1.1 히브리어 (e2.1.1.1 / q2.1.1.2)

2.1.2 희랍어와 라틴어 (e2.1.2.1 / q2.1.2.2)

2.2 루터의 직업 개념 (e2.1 / q2.2)

2.2.1 세속적 의미로서의 Beruf (e2.2.1.1 / q2.2.1.2)

2.2.2 종교적 의미를 갖는 노동 (e2.2.2.1 / q2.2.2.2)

2.2.3 토마스 아퀴나스적 직업 개념 비판 (e2.2.3.1 / q2.2.3.2-3)

2.2.4 세속적 직업 노동의 의의 (e2.2.4.1 / q2.2.4.2)

2.2.5 모든 직업의 동가치성 (e2.2.5.1 / q2.2.5.2-3)

2.2.6 루터주의의 한계 (e2.2.6.1)

2.2.6.1 자본주의 정신과 관련성 결여 (e2.2.6.1.1 / q2.2.6.1.2)

2.2.6.2 전통주의로의 후퇴 (e2.2.6.2.1 / q2.2.6.2.2)

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3.1 칼뱅주의: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대표적 형태
(e3.1.1 / q3.1.2)

3.1.1 예정설 (e3.1.1.1)

3.1.1.1 예정설에 대한 접근 방식 (e3.1.1.1.1 / q3.1.1.1.2)

3.1.1.2 예정설의 역사적 영향 (e3.1.1.2.1 / q3.1.1.2.2)

3.1.1.3 예정설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e3.1.1.3.1
/ q3.1.1.3.2 / q3.1.1.3.3)

3.1.1.4 예정설과 칼뱅주의: 칼뱅주의 예정설의 성립 (e3.1.1.4.1
/ q3.1.1.4.2)

3.1.1.5 칼뱅주의 예정설의 주요 특징

- 3.1.1.5.1 신과 인간의 관계: 신의 비인격성과 불가지성
(e3.1.1.5.1.1 / q3.1.1.5.1.2)
- 3.1.1.5.2 구원의 문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신의 영원한 결단
(e3.1.1.5.2.1 / q3.1.1.5.2.2)
- 3.1.1.6 예정설의 실천적, 심리적 영향
 - 3.1.1.6.1 개인의 내적 고립감 (e3.1.1.6.1.1 / q3.1.1.6.1.2)
 - 3.1.1.6.2 성례의 소멸: 탈마법화의 완결
(e3.1.1.6.2.1 / q3.1.1.6.2.2)
 - 3.1.1.6.3 감각적 문화에 대한 배척: 개인주의의 형성
(e3.1.1.6.3.1 / q3.1.1.6.3.2)
 - 3.1.1.6.4 세속적 직업노동에 대한 의미부여
 - 3.1.1.6.4.1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세속적 직업노동
(e3.1.1.6.4.1.1 / q3.1.1.6.4.1.2)
 - 3.1.1.6.4.2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 수단으로서의 직업노동
(e3.1.1.6.4.2.1 / q3.1.1.6.4.2.2)
 - 3.1.1.6.4.3 ‘유효한 소명’으로서의 직업노동
(e3.1.1.6.4.3.1 / q3.1.1.6.4.3.2)
 - 3.1.1.6.5 생활의 조직화와 합리화
(e3.1.1.6.5.1 / q3.1.1.6.5.2)
 - 3.1.1.6.6 금욕주의적 성격의 부여
(e3.1.1.6.6.1 / q3.1.1.6.6.2)
- 3.1.2 금욕주의
 - 3.1.2.1 금욕주의의 유래 (e3.1.2.1.1 / q3.1.2.1.2)
 - 3.1.2.2 가톨릭 금욕주의와의 비교
 - 3.1.2.2.1 세속적 노동에 대한 근본 태도의 차이 (e3.1.2.2.1.1 / q3.1.2.2.1.2)
 - 3.1.2.2.2 금욕적 이상의 공유: 종교적 귀족주의 (e3.1.2.2.2.1 / q3.1.2.2.2.2)
- 3.2 칼뱅주의 이외의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형태 (e3.2.1 / q3.2.2)

- 3.2.1 경건주의
 - 3.2.1.1 칼뱅주의와의 관계 (e3.2.1.1.1 / q3.2.1.1.2-3)
 - 3.2.1.2 경건주의의 난점 (e3.2.1.2.1 / q3.2.1.2.2)
- 3.2.2 메서디즘
 - 3.2.2.1 메서디즘의 특성 (e3.2.2.1.1 / q3.2.2.1.2-5)
 - 3.2.2.2 메서디즘의 난점 (e3.2.2.2.1 / q3.2.2.2.2)
- 3.2.3 침례교 계통의 교파들
 - 3.2.3.1 칼뱅주의와의 관계 (e3.2.3.1.1 / q3.2.3.1.2)
 - 3.2.3.2 침례교 교파의 금욕주의의 한계
(e3.2.3.2.1 / q3.2.3.2.2)
- 3.3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
 - 3.3.1 가장 큰 죄로서의 시간의 낭비 (e3.3.1.1 / q3.3.1.2)
 - 3.3.2 금욕의 수단으로서의 노동 (e3.3.2.1 / q3.3.2.2)
 - 3.3.3 삶의 자기 목적으로서의 노동 (e3.3.3.1 / q3.3.3.2)
 - 3.3.4 신의 명령으로서의 부의 추구: 이윤추구의 섭리적 해석
(e3.3.4.1 / q3.3.4.2)
 - 3.3.5 기업가 활동의 정당화 (e3.3.5.1 / q3.3.5.2)
 - 3.3.6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 문제 (e3.3.6.1 / q3.3.6.2)
 - 3.3.7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미친 영향 (e3.3.7.1 / q3.3.7.2 / q3.3.7.3)

제 3 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내용 분석 연구

1. 자본주의 정신

(e1.1) 왜 근대의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유독 유럽에서만 출현하였는가? 베버는 근대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기원을 비교문명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 작동하는 ‘모험가적’ 자본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존재했다. 서부 유럽이 매우 독특했던 점은 모험가적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합리적’ 자본주의의 출현에 있다.

(e1.2) 베버는 서구의 합리적 자본주의의 특징적 현상으로 ‘형식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정기적 시장에 맞추어진 합리적 산업조직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서구에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베버는 이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서 칼뱅주의로 대표되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적한다.

1.1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1.1.1 자본주의의 유형

(e1.1.1.1) 베버는 금전욕, 영리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면서 “이윤 획득을 위한 무제한적 탐욕은 결코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도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베버가 말하는 근대의 자본주의는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통하여 영리를 얻고자 하는 경제제도를 자본주의라 할 때, 영리를 얻고자 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적 영리 활동을 고대 및 중세의 중세에 있어서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아울러 이 비교에 덧붙여 합리주의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주의를 비합리적 자본주의와 합리적 자본주의, 그리고 고대의 자본주의와 근대의 자본주의라는 네 가지 유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저서 중 특히 『경제사』(*Wirtschaftsgeschichte*)(S.345-8)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를 합리적 자본주의 및 근대의 자본주의는 뒤에서 상술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비합리적 자본주의와 고대의 자본주의를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는 비합리적 자본주의이다. 베버는 서양과 중국 및 근동 아시아에 있어서 조세청부를 위한 자본주의적 기업과 전쟁비용 용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기업을 이러한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정신에서 배격했던 투기적 자본주의나 고리대금에 의하여 타인을 궁핍화하는 고리대 자본주의도 같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할 또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는 고대의 자본주의이다. 베버에 따르면 고대와 중세 후기의 자본주의는 도시의 자유를 종식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는 근대에 도시가 겪은 운명과는 전적으로 달랐다고 하겠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인용해보자.

(q1.1.1.2) 획득에의 충동, 이윤에 대한 추구, 그리고 가능한 많은 양의 화폐에 대한 추구 그 자체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 이 충동은 웨이터, 의사, 마부, 예술가, 창녀, 부패관리, 군인, 귀족, 십자군, 도박꾼, 거지 등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해왔다. 아마도 이 충동은 그것의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혹은 있었던 곳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종류와 조건의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소박한 생각이 단적으로 포기되어야 함은 문화사 연구에서 극히 초기에 가르쳐져야 한다.(p.8-9/S.4)

(q1.1.1.3) 이러한 방식의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경제행위를 화폐소득과 화폐지출의 비교에 적응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영은 자본주의적 계산의 상당한 합리화를 갖춘 식으로 경제적 문헌들이 우리의 판단을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이미 지구상의 모든 문명화된 나라들에 존재했었다. 근대뿐 아니라 중국, 인도, 바빌론, 이집트, 고대 지중해, 중세에도 존재했었다. [...] // 그러나 이제 서양은 자본주의를 양적인 정도로 그리고 (이 양적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유형, 형태, 그리고 방향으로 발전시켰다.(p.10-11/S.6)

1.1.2 합리화와 근대 자본주의

(e1.1.2.1) 근대 자본주의의 영리획득은 단순한 탐욕 또는 영리획득의 심리적 본능과는 다르다. 영리를 지속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근대의 자본주의적 영리획득의 특징이다. 이러한 영리획득의 방법은 단순한 영리욕, 탐욕의 추구가 아니라 도리어 불합리한 욕망의 억제 또는 욕구의 합리적인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버는 이를 단적으로 ‘합리화’ 또는 ‘합리성’이라 일컫는다. 『종교사회학 논문집』의 “서문”(Vorbemerkung) (T. 파슨즈가 이것을 자신이 번역한 영역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58)의 서문(Author's Introduction)으로 실어 놓았지만 원래는 『종교사회학 논문집』의 전체서문으로서 1919년에서 20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측된다. 시기적으로 보아 베버 최후의 공식적인 글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에서 베버는 “우리의 근대적 삶에서 가장 운명적인 힘인 자본주의”(p.8)인 자본주의가 역사상 유독 서구에서만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형태의 분석에 있어서 ‘합리화’라는 범주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리 말해 두자면 그에게 근대화는 단적으로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전반적인 합리화 과정 내에 놓인 역사적 결과물로 보고 있다. 요컨대 그는 근대 자본주의를 역사의 장대한 합리화 과정 내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1.1.2.1 서구문화의 합리주의

(e1.1.2.1.1) 주지하다시피 베버의 일생을 지배한 문제의식은 ‘서구합리주의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전형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글이 앞서 언급한 “서문”이다. 여기서 그가 보편사적인 문제(universalgeschitliche Problem)이라고 부르고 있는 문제는 ‘왜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과학적, 예술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서구와 같은 합리화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뒤이어 그는 서구 문화의 고유한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와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일 먼저 그는 근대 과학을 언급하는데, 그에 따르면 근대 과학은 수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화성법과 오케스트라 악기들, 투시화법, 농담원근법의 사용 등을 예로 든다.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전문 관리에 의한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치 조직체로서의 국가 또한 서구 합리주의의 특수한 현상이다. 다음에 언급될 경제 영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구문화의 특수하고 독특한 합리화이다.(p.16)

(q1.1.2.1.2) 보편사의 어떤 문제를 연구하든, 근대 유럽 문명의 산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자문하게 만든다. 즉 ‘보편적’인 의의와 가치를 지닌 발전선상에 놓여있는 듯한 문화적 현상이 서구 문명에서 그리고 오직 서구 문명에서만 나타난 사실은 어떤 일련의 환경들에 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 오직 서구에서만 우리가 오늘날 타당한 인정하고 있는 발전단계에 오른 과학이 존재한다. [...] 중국의 고도로 발전된 역사연구도 투키디데스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 합리적인 화성음악, 대위법과 화음, 3도 음정을 지닌 세 화음에 근거한 음의 조작 [...] 이 모든 것은 단지 서양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 정기적으로 선출된 국민대표들로 구성되는 의회와 정치 활동가 및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각료로서의 정당지도자에 의한 지배는 오로지 서구에서만 등장했다. [...] 사실 합리적으로 제정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규에 따른 행정 등을 갖추고 전문 관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정을 수반하는 정치조직체로서의 국가는 그 모든 유사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서구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다.(p.5-8, 부분 수정/S.1-4)

1.1.2.2 합리적 자본주의의 출현

(e1.1.2.2.1) 베버가 최종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인의 “근대적 삶에서 가장 운명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또한 서구에만 특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 행태는 지구상 어느 문화지역에서나 존재했다. 그러나 서구는 근대에 이르러서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즉 서구 이외의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던 유형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p.12/S.7) 이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곧 ‘합리적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방법은 단순한 영리욕이나 탐욕의 추구가 아니라 도리어 그와 같은 불합리한 충동의 절제 즉 합리적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에 의한 이윤추구 그리고 영원히 ‘재생되는’ 이윤의 추구하고 동일한 것”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근대화란 합리화이며, 이 합리화는 서구 문화의 특수하고

독특한 현상이고, 서구의 근대적 자본주의 또한 이 합리화에 의해서 여타의 자본주의와 결정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보면, 베버는 근대성 혹은 합리성을 자본주의의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일차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근대화 곧 합리화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 말을 빌리자면, “근대 경제의 기본 동기는 경제적 합리주의”(p.56)라고 할 수 있다.

(q1.1.2.2.2) 이는 우리의 근대적 삶에서 가장 운명적인 힘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획득에의 충동, 이윤에 대한 추구, 그리고 가능한 많은 양의 화폐에 대한 추구 그 자체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 이 충동은 웨이터, 의사, 마부, 예술가, 창녀, 부패관리, 군인, 귀족, 십자군, 도박꾼, 거지 등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해왔다. 아마도 이 충동은 그것의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혹은 있었던 곳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종류와 조건의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소박한 생각이 단적으로 포기되어야 함은 문화사 연구에서 극히 초기에 가르쳐져야 한다. 획득을 위한 무제한한 탐욕은 결코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정신과는 더욱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아마도’ 이러한 비합리적 충동의 절제 혹은 적어도 그러한 충동의 합리적 완화와 동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에 의한 이윤추구 그리고 영원히 ‘재생되는’ 이윤의 추구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사회질서 안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자신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적인 자본주의 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8-9/S.4)

1.1.2.3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

(e1.1.2.3.1) 앞에서 누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버가 강조하는 것은 “서구문화의 특수하고 독특한 합리화”(p.16)이다. 이는 “근대적 삶에서 가장 운명적인 힘”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베버는 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폭넓은 문화현상으로서의 합리화 또는 합리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경제영역에서의 합리화의 특징 혹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3.1.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

(e1.1.2.3.1.1) 경제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합리화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노동조직의 합리화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 서양을 제외하고는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베버는 “서문”은 아니지만, 『종교사회학 논문집』의 “서문” 바로 다음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앞부분(1장 1절)에서 자본주의에 대비하여 ‘전통주의’(Traditionalismus)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전통주의적 노동과 자본주의적 노동이 구분된다. 과거 지배적인 가톨릭적 질서 체제는 이윤추구 자체에 부정적이었으며, 이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노동은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취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서구의 기존 질서체계에 순응적인 노동양식을 넓은 의미에서 전통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전통주의적 노동자와 자본주의적 노동자는 우선 노동의 조직화에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1.1.2.3.1.2) 이윤추구를 자기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수행은 전통주의적 형식의 노동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장노동으로 조직화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체계에 적응할 수 없었고, 분업적 숙련 노동에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기존의 전통주의적 노동형태로는 공장노동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베버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계산은 단지 자유로운 노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근대의 서양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자유노동조직이 없었기에 프롤레타리아도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같은 이유에서 근대 서양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기업가와 자유노동자간의 근대적 대립이 전

무했기에 합리적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q1.1.2.3.1.3) 근대에 서양에서는 이에 더하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매우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즉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그것이다.(p.12/S.7)

(q1.1.2.3.1.4) 서구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그 중요성을 결국에는 그것들이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결부되었다는 데서 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업화라고 불리는 것, 즉 유통증권의 발달과 투기의 합리화인 증권거래 등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연관된 근대 서양의 특수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지금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정밀한 계산은 단지 자유로운 노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 세계에서 근대 서양을 제외하고는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존재하지 않았듯이 혹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합리적 사회주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 그리고 근대 서양의 바깥에는 부르주아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훈련 아래 있는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13-4/S.8-9)

1.1.2.3.2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이용

(e1.1.2.3.2.1)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요소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합리적 기술 또는 기술의 합리성이다. 베버에 따르면 서구 자본주의의 합리성은 단적으로 “기술적 요인들의 계산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과학들과 그것에 의거하는 기술의 발달은 과학적 지식을 실제적인 경제 부문에 응용하려는 자본주의적 관심으로부터 결정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과학지식의 기술적 이용은 바로 경제적인 고려에 따라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이용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합리적 무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이어 설명할 것이다.

(q1.1.2.3.2.2) 이제 자본주의의 특별히 근대 서구적인 형태는 일견하기에 기술적 가능성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받아 온 것 같다. 그 자본주의의 합리성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인들의 계산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가 근대 과학의 독특함 특히 수학에 근거한 자연과학과 정밀하고 합리적인 실험 등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학, 그리고 그 과학에 의존해 있는 기술의 발달은 다시 중요한 자극을 실제상으로 적용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부터 받는다. 물론 서구과학의 기원이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대중의 생활조건에 그렇게도 중요한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사용은 분명 서양에서 매우 우호적이었던 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촉진된 것은 분명하다.(p.14-5/S.10)

1.1.2.3.3 합리적 부기

(e1.1.2.3.3.1) 베버에 따르면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농부의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경제, 옛 길드 수공업자의 특권적인 관례, 정치적 기회와 비합리적 투기를 지향하는 ‘모험가’ 자본주의 등과는 달리 엄밀한 ‘회계적’ 계산의 토대 위에서 합리화되고, 계획적이고 냉정하게 추구된 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는 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특성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p.57) 여기서 자본주의적 합리화와 관련해서 베버가 강조하는 것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부기(簿記) 방식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이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전통주의적 노동과 대비할 때 자본주의적 노동은 앞서 말한 자본주의적 노동 조직뿐만 아니라 부기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전통주의적 노동형태로는 자본주의적 부기방식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자본주의 성립기에 자본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임금 인하를 실시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전통주의적 노동자의 경우에는 항상 실패로 끝나고 만다. 경영방식에서의 합리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여기서 합리적 부기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베버는 가계(家計)와 경제의 분리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합

리적 부기라는 이 두 가지 중대한 발전 요소가 없었다면, 근대적 자본주의 경영 조직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기업 경영에서는 투하된 비용과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일정한 기업 활동 기간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이윤 또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합리적 부기 방식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베버는 부기의 기원이 되는 대수학은 원래 인도인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그들은 근대적 산술과 부기 방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데 비해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q1.1.2.3.3.2) 이윤을 위한 정치적 기회나 비합리적 투기적 기회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정기적 시장에 맞추어진 합리적 산업조직은 그렇지만 서구 자본주의에만 독특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영의 근대적인 합리적 조직은 그 발전에 있어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근대적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가사와 사업의 분리, 그리고 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합리적 부기가 그것이다. 거주지 장소와 노동의 장소의 공간적 분리는 동양의 시장이나 다른 문화에서의 에르가스테리아의 경우처럼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나뭇의 회계를 지닌 자본주의적 결사체의 발달은 극동, 근동, 그리고 고대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근대적 독립성에 비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단지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특히 이러한 독립을 위해 불가결한 선결요건 즉 서구의 합리적인 기업부기 그리고 개인적 소유와 기업의 법적인 분리가 전적으로 결여되었거나 아니면 단지 발달의 초기상태에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p.12-3/S.7-8)

(q1.1.2.3.3.3) 십진법을 갖춘 계산 그리고 대수학은 십진법이 고안된 인도에서 이미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의 발전하는 자본주의에 의해서만 이용되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그러한 계산이 어떤 근대적 대수학이나 부기로도 귀결되지 못했다. 수학이나 역학의 기원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생활조건에 그렇게도 중요한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사용은 분명 서양에서 매우 우호적이었던 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촉진된 것은 분명하다.(p.15/S.10)

1.1.2.3.4 합리적 법과 행정

(e1.1.2.3.4.1) 또한 베버는 법과 행정의 합리적 구조(rationale Struktur)가 근대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성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근대 자본주의는 기술적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형식적 규칙에 따라 계산 가능한 법적 체계와 행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경영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 및 법적 체계가 미리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국가 권력자의 자의에 의하여 행정이나 재판이 집행되면 당연히 경영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산 가능한 법률과 형식적 규칙에 의거한 행정, 간단히 말해 합리적인 법과 행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베버에 따르면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모험적 내지 투기적 자본주의나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잡다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가능하겠지만, “고정자본을 갖추고 계산의 확실성을 지닌 개인적 창의를 의한 합리적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합리적, 근대적 자본주의는 합리적 법과 행정, 곧 합리적 국가의 형성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베버는 “오직 서양에서만 비교적 잘 이루어진 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경제 활동에 이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서구 문화의 특수하고 독특한 합리화를 확인하게 된다.

(q1.1.2.3.4.2)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것들 중에는 법률과 행정의 합리적 구조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는 단지 기술적 생산수단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규칙에 따라 계산 가능한 법적 체계와 행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어도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상인 자본주의와 모든 종류의 정치적으로 규정된 자본주의는 가능하지만, 결코 고정자본을 갖추고 계산의 확실성을 지닌 개인적 창의를 의한 합리적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법적 체계와 행정은, 오직 서양에서만 비교적 잘 이루어진 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러 다른 환경 중에서도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역으로 다시, 법과 행정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법률로 훈련된 법관

계급의 우세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도 일조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었다거나 주된 것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 자체가 법률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힘들이 작용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같은 결과를 낳지 못했을까? 왜 그곳에서의 과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발전은 서양에 독특한 합리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까? //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문화에 특수하고 독특한 합리화이다.(p.15-16/S.11)

1.2 자본주의 정신의 출현과 그 특징

(e1.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의 기업이 노동의 합리적 조직,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이용, 합리적 부기, 합리적 법과 행정 등을 통해 합리적, 지속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근대적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 또는 합리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과연 근대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을까? 베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주의의 발달이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 기술과 법률에 의존한다 해도 그와 동시에 그러한 발달은 일정한 유형의 실천적인 합리적 행위를 채택하는 인간들의 능력과 성향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p.16-7) 즉 베버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낳은 것, 그리하여 이상의 모든 조건 또는 합리성의 측면들을 가능케 한 것은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합리적 정신, 생활태도의 합리화,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윤리 등, 한마디로 ‘자본주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베버는 생활태도, 경제 윤리에 프로테스탄티즘 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혹은 정신과 근대 자본주의 문화 사이의 내적인 친화 관계(p.31)가 논의된다는 것이다.

1.2.1 베버의 의문: 부르주아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친화관계

(e1.2.1.1) 베버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형성한 것은 근원으로서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더 정확하게는 그것의 특징이나 내용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신앙과 내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기에 앞서 자본주의적 현상 형태와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에 보여 지는 역사적, 실제적인 친화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가 갖고 있는 첫째 의문은 프로테스탄트가 자연과 교통 조건이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방들에서 특히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특별히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소지를 가졌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베버는 이에 대해 스스로 그 답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q1.2.1.2) 자연이나 교통조건을 통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부유한 여러 지역, 특히 많은 수의 부유한 도시들은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으며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는 오늘날에도 경제적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곧 다음과 같은 역사적 질문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특별히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소지를 가졌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p.24/S.19-20)

1.2.1.1 부르주아 계급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선택

(e1.2.1.1.1) 그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인간의 삶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래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대체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지배 형식이 매우 느슨하여 실제생활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면 종교개혁, 더 정확히는 프로테스탄티즘은 가정생활 일체와 공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하고 진지한 규율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단은 엄벌하나 죄인에게는 관대한” 가톨릭교회의 지배에 복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일상생활에 대해 가톨릭보다 훨씬 강하게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왜 프로테스탄티즘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바로 베버의 의문이었던 것이다. 제네바, 네덜란드, 영국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부르주아 중산계급이 청교도라고 하는 유례없는 전제(專制)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부르주아 계급 자신이 ‘전무후무한 영웅주의’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버는 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답해 나간다. 그리고 바로 이에 대한 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q1.2.1.1.2) 물론 경제적 전통주의에서 탈피한 것이 종교적 전통에 대한 회의 경향과 전통적 권위 일반에 대한 거부 경향을 본질적으로 밀받침하는 한 계기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 오늘날 종종 망각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종교개혁은 삶 전반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까지의 삶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함을 뜻한다. 물론 이는 극도로 순응적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지배를, 대대적으로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 파고들어 모든 삶의 영위를 매우 부담스럽고 진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지배 - ‘이단을 벌하고 죄인에게는 온화하게’, 이는 현재보다는 그 당시에 더욱 그러했다 - 는 현재 철저하게 근대적인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민들도 감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15세기 말 경에 출현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는 감당하기는 것이 더욱 쉬었다. [...]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가들이 비난한 것은 삶에 대한 교회적, 종교적 지배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나라 안에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던 ‘부르주아적’ 중산계급이 전대미문의 그러한 청교도적 전제(專制)를 받아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칼라일이 정당하게 ‘우리들 최후의 영웅주의’라 부른 전무후무한 영웅주의를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변호,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어찌된 것일까?(p.24-5/S.20-1)

1.2.1.2 종파와 직업적 분화의 관계

(e1.2.1.2.1) 베버는 독일의 직업통계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기업의 자본 소유자, 경영자가 가톨릭 계통의 사람들보다도 프로테스탄트 계통의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인문계 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은 가톨릭교도가, 그리고 실업계 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은 프로테스탄트교도가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요컨대 가톨릭 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종파에 따라 직업적 분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의 내면적 관련, 즉 친화성을 해명하는 것이 베버의 의도였다.

(q1.2.1.2.2)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가톨릭 학생 중에서도 기술적 연구와 상공업을 위해 준비하는 근대적 기관, 즉 실업고등학교 [...] 등과 같이 부르주아적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예비교육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하다. 이는 [...] 왜 자본주의적 영리활동에 가톨릭이 적게 참여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로 여겨져야 한다. // 근대적 대기업에 가톨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를 이해시켜 줄 다른 현저한 사실이 있다. 공장이 자신의 숙련노동력을 수공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상당 부분을 취하고, 따라서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연마를 수공업에 위임하여, 숙련이 끝나면 노동력을 취해 간다는 숙지된 현상은 본질적으로 가톨릭의 수공업 노동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경우에는 뚜렷이 나타나난다. 달리 말해 수공업의 도제 중 가톨릭은 수공업에 잔존하려는 경향이 보다 크며 따라서 수공업의 장인(匠人)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상대적으로 공장으로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숙련 노동자층과 경영 관리층의 상층부를 충원시키는 경향이 짙다. 이 경우 분명히 습득된 정신적 특성, 그리고 특히 고향과 집의 종교적 분위기를 통해 규정된 교육 방향이 직업 선택과 그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p.25-6/S.21-2)

1.2.2 의문에 대한 궁극적 해명 방식

(e1.2.2.1) 근대의 신흥부르주아지가 왜 프로테스탄트의 전제(專制)를 선택하였으며, 자본주의적 기업의 자본 소유자, 경영자가 가톨릭 계통의 사람들보다도 프로테스탄트 계통의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베버의 의문에 대한 근원적 해명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버에 따르면, 실제로 “프로테스탄트는 지배층으로서든 피지배층으로서든, 다수로서든 소수로서든 경제적 합리주의를 향한 특수한 경향을 가지고 있던 데 반해 가톨릭은 어느 경우든 간에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태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베버는 그 원인은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가 종파가 그때그때 처한 외적인 역사적-정치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신앙의 지속적인 내적 특성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p.27) 그런데 문제를 피상적 분석이나 어떤 관찰에 의해 통념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가톨릭은 보다 비세속적이고 금욕적 이어서 그 신자들이 현세의 재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식이다. 베버는 이러한 통속적인 도식으로는 저 의문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제공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 가톨릭교도들은 하층에서 매우 향학적이고 상층에서 종교에 정면으로 적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은 세속적 경제생활에 매몰되어 있었고 그 상층이 종교에 거의 무관심했다. 이런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이른바 가톨릭의 비세속성이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유물론적인 세속성 따위처럼 애매한 표상으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출발점도 찾을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q1.2.2.2) 피상적인 관찰과 몇 가지 근대적인 인상에 입각해서 그러한 대립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가톨릭의 강한 ‘비세속성’(Weltfremdheit), 가톨릭의 최고 이상인 금욕적 성격이 신자들로 하여금 현세의 재물에 대해 보다 강한 무관심을 보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설명은 오늘날 두 종파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대

중적으로 사용하는 도식과 일치한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톨릭적인 삶의 영위가 갖는 (실제로건 아니면 말뿐이건) 금욕적 이상에 대한 비판에 이용하며 가톨릭측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모든 삶의 내용의 세속화 결과로 주장되는 ‘물질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답한다. // 그러나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다. 즉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는 주지하다시피 ‘현세적 쾌락’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우리가 매우 중요시해야 할 그들의 특징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 하층은 가톨릭이 지배적인데, 하층은 극히 삶을 즐기고 상층은 종교에 단적으로 적대적이며, 독일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이 지배적인데, 현재 세속적인 영리활동에 몰두하고 있고 그 상층은 종교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행관계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위!) 가톨릭의 비세속성이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유물론적인 세속성 따위처럼 애매한 표상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출발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p.27-28, 부분 수정/S.24-5)

(e1.2.2.3) 여기서 베버가 강조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 환기한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예증만으로도 ‘노동의 정신’이라고 불리든 ‘진보의 정신’이라고 불리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그러한 정신을 프로테스탄티즘이 일깨운 것은 분명하다고 베버는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정신은 세속적 향락이나 계몽주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베버는 이러한 전제에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일정한 특징과 근대 자본주의 문화 사이에 성립하는 내적인 친화성을 밝히려 할 경우,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특성 가운데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제1장 「문제」의 제1절 “종파와 계층”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고 있다.

(q1.2.2.4) 전적으로 예비적인 논의인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충분히 지적되기 때문이다. 즉 ‘노동의 정신’ 또는 ‘진보의 정신’, 아니면 그 무엇이랴 부르든 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환기시켰다고 하는 그 정신은 ‘세속성’이나 아니면 ‘계몽주의적’ 의미로 이해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루터, 칼뱅, 녹스(Knox), 보에 등의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은 오늘날 ‘진보’라 부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종교가들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하는 근대적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초기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정면으로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초기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일정한 특징과 근대의 자본주의적 문화 사이에 어떤 내적인 친화성이라는 것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러한 친화성을 (소위) 그것의 다소간 유물론적인 혹은 반금욕적인 ‘세속성’(Weltfreude)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순수한 종교적 성격에서 찾아야만 한다.(p.31/S.29)

1.2.3 자본주의 정신의 개념과 특징

1.2.3.1 프랭클린의 말과 ‘자본주의 정신’

(e1.2.3.1.1) 베버가 경제 영역의 합리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노동의 합리적 조직과 합리적 부기 방식 등에서 찾았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가톨릭교도에 비해 자본주의의 전개에 보다 긴밀하게 관계하였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사이에는 어떤 내적인 친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베버의 의문이었는데, 베버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말, 또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는 프랭클린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베버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사실은,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p.36)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는 ‘탐욕의 철학’이 아니라 독자적인 윤리 혹은 하나의 에토스(ethos)가 표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q1.2.3.1.2)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말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산책하거나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오락을 위해 6펜스만을 지출했다 해도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외에도 5실링을 더 지출한 것이다. 아니 갓다 버린 것이다. // 신용이 돈임을 잊지 말라.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지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맡겨 두었다면 그는 나에게 이자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간 동안 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준 것이다. 좋은 신용을 가졌고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대단한 액수의 돈을 쌓을 수 있다. //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새끼가 또다시 번식해 나간다. 5실링은 6실링이 되고 다시 7실링 3펜스가 되어 결국 1백 파운드가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더욱 늘어나며 결국 효용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 한 마리의 암돼지를 죽이는 것은 그로부터 번식될 1천 마리의 새끼 돼지를 죽이는 것이다. 5실링의 화폐를 사장시키는 자는 그 돈으로 생산될 수 있었을 모든 것, 즉 수천 파운드를 없애는 것이다(!) [...] 근면과 검소 이외에 모든 일에서 시간엄수와 공정보다 젊은이를 출세시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빌린 돈을 결코 당신이 약속한 것보다 한 시간이라도 지체시키지 말라.(p.34-5/S.31-2)

1.2.3.2 하나의 에토스로서의 자본주의 정신

(e1.2.3.2.1) 베버에 따르면, 앞서 인용한 프랭클린의 말과 관련하여, 페르디난트 퀴른베르거는 자신의 풍자적이고 독설적인 『미국 문화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양키의 신앙고백이라고 조롱했다. 퀴른베르거에게 그것은 “소에게서는 기름을 짜내고 사람에게서는 돈을 짜낸다.”는 ‘탐욕의 철학’에 바탕을 둔 처세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베버에 따르면 프랭클린의 말에서 설교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윤리이다. 이것을 가리켜 ‘에토스’ 혹은 ‘자본주의적 에토스’라고 부른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은 “물론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중국, 인도, 바빌로니아에도 존재하였고, 고대나 중세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는 바로 이 독특한 에토스가 결여되어 있었다. 윤리, 더 정확하게는 직업윤리, 나아가서는 경제윤리라고 할 수 있을 이 에토스는 미리 말

하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간단히 말하면, 프랭클린의 말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자본주의 정신은 하나의 독특한 직업윤리를 표명하며, 이는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제공된 에토스라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에토스’ =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이며, 양자는 실제적인 의미가 같은 것으로 서로 교환 가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베버의 말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1,2,3,2,3 참조.)

(q1.2.3.2.2)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프랭클린의 말]는 단순한 처세술이 설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윤리’가 설교되고 있는 것이다. 이 윤리의 불이행은 태만함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일종의 의무망각으로 취급된다. 바로 이점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 글[프랭클린 인용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 이 글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에토스이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점도 바로 이러한 특성이다. // 이 논문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특별한 의미에서 사용될 것이다. 물론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지 이러한 서구적-미국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문제제기의 성격상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중국, 인도, 바빌론, 그리고 고대와 중세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는 우리가 보게 될 것과 같은 독특한 에토스가 결여되어 있다.(p.37/S.33)

(q1.2.3.2.3) 대체적으로 삶 자체를 소박하게 평가하는 쪽으로 기울던 옛 유대교의 분위기는 정교도주의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 자본주의적 에토스의 발전을 결정지었던 특징이란 면에서 보더라도 중세와 근대 유대교의 경제윤리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거리가 멀다. 유대교는 정치나 투기에 의존하던 ‘모험가’ 자본주의에 속한다. 즉 유대교의 에토스는 한 마디로 말해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의 에토스다. — 청교도주의는 합리적인 부르주아 경영과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수행했다. 청교도주의는 유대교 윤리 중에서 이러한 태두리에 적합한 것만을 취택했다.(p.132/S.181)

1.2.3.3 자본주의 정신의 특징

1.2.3.3.1 이윤추구의 옹호

(e1.2.3.3.1.1) 자본주의 정신은 ‘전통주의’ 에토스에서처럼 이윤추구 활동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태도에 반대한다. 즉 자본주의 정신은 이전처럼 이윤추구가 불가피한 악이라거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 그것을 도덕 이외의 것으로 보아 무제한의 본능과 충동에 따르도록 묵인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추구의 행위를 옹호하며 그것을 에토스의 차원, 즉 하나의 직업윤리 또는 경제윤리의 차원에서 윤리화한다.(최문환, p.42-3) 그리하여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 추구활동을 그 자체 윤리적 의무와 같이 생각하게 된다. 영리(榮利)는 인생의 목적이지 결코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의 중심적 기조이며 바탕이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직업 의무’(Berufspflicht)이다. 그리고 “직업의무의 행사로서의 부(富)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p.130)

(q1.2.3.3.1.2) 자서전에 나타난 희귀한 정직성에서 보여 준 벤저민 프랭클린의 고유한 성격과, 그가 미덕의 ‘효용성’만을 문제 삼는다는 사실 자체를 그로 하여금 미덕으로 향하게 만든 신의 계시로 환원한다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순수한 자기중심적 격률의 장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 ‘윤리’의 ‘최고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돈을 벌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것도 모든 적나라한 향락을 엄격히 피하면서 행복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모든 단점을 전적으로 벗어나 돈 버는 것을 그저 자기 목적으로 여기므로 개인의 ‘행복’과 ‘효용’에 대립되는 전혀 초월적이고 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인간은 돈벌이를 자신의 물질적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로 여기는 것이다.(p.38/S.35-6)

(q1.2.3.3.1.3) 도대체 ‘인간에게서 돈을 짜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

고 묻는다면 벤저민 프랭클린은, 비록 그 자신이 종파적 색채가 없는 이신론자(理神論者)지만, 그의 자서전에서 성경구절로 대답한다. 그 구절은 그가 말하고 있듯이 엄격한 칼뱅 교도였던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주입시켰던 것이다. 즉 “그의 직업에 충실한 자를 보았으나, 그는 왕 앞에 서리라”가 그것이다. 화폐취득 - 그것이 합법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인 한 - 근대적 경제 질서 안에서 직업상의 유능함의 표현이며 이 유능함은 쉽게 알 수 있듯이 프랭클린 도덕의 실질적인 알파이자 오메가이다.(p.38-9/S.36)

1.2.3.3.2 노동자의 근면성

(e1.2.3.3.2.1) 물론 이윤추구에는 정직, 근면, 검소, 신중 등의 윤리적 가치가 결부되어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면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중세의 전통주의는 중전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든지 또는 좀더 노동하면 보수가 많아도 중전보다 그 이상의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베버는 이러한 전통주의의 의식과 태도를 독일의 평범한 술레지아 사람들의 농업노동에 관련지어서 설명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추수기는 노동의 집약이 최대한으로 요청되는 시기이다. 일정한 시기 내에 최대한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만일 이것이 성공하면 이윤은 훨씬 증가하고 만일 시기를 놓치면 이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때 기업가는 성과급을 적용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보통 이상의 고액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노동량의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영국인들이 ‘고임금의 경제’라 부르는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확실히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 술레지아 지방에서 그와 전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지방의 노동자들은 성과급제에 대응하여 일당 노동량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방 노동자들은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그 후는 휴식을 택하는 반응을 보였다. 요컨대 이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보수가 많은 쪽이 아니라 노동이 적은 쪽이었다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전통주의적 에토스 속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근대적 자본주의 경영은 발달하기

어렵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국에서는 물론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반적이었다. 영국의 경우에 노동자들은 도덕적으로 성실할수록 임금인상에 호응하여 끊임없이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수록 다음날에 쉬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운동을 고취시키면 더욱더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q1.2.3.3.2.2) 그런데 여기에는 고유한 난점이 있다. 즉 성과급의 비율을 상향시키면 동일 시간 안의 노동성과는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결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성과급의 인상에 대해 하루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모르겐의 수확량당 1마르크의 보수를 줄 때 하루에 2와 1/2모르겐을 수확하여 2와 1/2마르크를 벌던 노동자는 1모르겐당의 성과급이 25페니히 오른 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보다 많은 벌이 기회를 맞아 (예를 들어) 3모르겐을 수확하여 3.75마르크를 버는 것이 아니라 — 물론 이런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 단지 하루에 2모르겐만을 수확한다. 그 이유는 종전처럼 2와 1/2마르크를 벌고 성경 말씀처럼 ‘그것에 만족해’ 버리기 때문이다. 잉여수입보다는 노동을 적게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그에게 작용한다. 즉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을 극대화시키면 매일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고 또 자신의 전통적 필요에 알맞던 그 액수 — 2와 1/2마르크 — 를 벌려면 하루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주의’라 불리는 태도의 한 사례이다. 즉 인간은 ‘그 본성상’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살고 그에 필요한 만큼만 벌려고 한다. 근대 자본주의가 노동 강도의 제고를 통해 인간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시작했던 모든 곳에서 자본주의는 전자본주의적 경제노동의 이러한 동기가 갖는 무한히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본주의의 토대로 여겨지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후진적’인 곳일수록 도처에서 보다 끈질긴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p.43-4/S.44-5)

1.2.3.3.3 엄격한 규율과 훈련에 의한 경제 행위

(e1.2.3.3.3.1) 자본주의 정신은 어떠한 내적 규범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방약무인한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엄격한 규율과 훈련에 의한 경제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런 점

에서 모험적 자본주의의 영리활동을 비난한다. “금전욕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베버에 따르면, “나폴리의 마부나 선원, 그리고 아시아의 유사한 직업 종사자들, 남부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공업자들이 갖는 금전욕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영국인들보다 훨씬 심각하며 특히 파렴치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훈련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노동자”도,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는 사업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규범에 적응할 수 없거나 적응하려 하지 않는 노동자가 실직하여 거리로 쫓겨나듯이 이 규범에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공장은 경제적으로 예외 없이 제거된다.”(p.40-1) 예컨대 치부(致富)를 위해서는 범선이 불타 버리는 것조차 불사하고 지옥이라도 향해하려던 ‘네덜란드 선장’(암스테르담의 상인 베이라트)과 같이 금전욕에 무제한 자신을 내맡겼던 사람은 결코 자본주의 정신의 전형과는 관계가 없다.

(q1.2.3.3.3.2) 화폐취득상의 자기 이익추구의 절대적인 파렴치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은 바로 부르주아적 — 자본주의적 발전이 — 서양의 발전에 비추어 ‘뒤처지는’ 나라에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모든 공장주들이 알고 있듯이 그러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그 나라의 자본주의 발달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었고 현재에도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자본주의는 훈련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프랭클린에게서 알 수 있듯이 단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는 사업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어떤 ‘충동’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하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욕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금전욕에 거리낌 없이 매달리는 사람 — 예를 들어 “이익을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향해하겠으며 설령 그림으로써 뜻이 불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한 네덜란드 선장처럼 — 은 결코 대중현상인 특정한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낳은 경향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p.41-2/S.42)

1.2.3.3.4 경제윤리적 보편주의

(e1.2.3.3.4.1) 베버에 따르면, ‘윤리’의 의상을 걸치고 규범의 구속에 따르는 특정의 생활양식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맞서야 할 적수는 ‘전통주의’라고 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였다. 이 전통주의의 맹점은 바로 경제윤리적 보편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윤리적 보편주의가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신분에 따라 경제윤리가 다르며 하층의 계급에만 영리를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베버는 치부(致富)를 위해서는 범선이 불타 버리는 것조차 불사하고 지옥에라도 향해하러던 ‘네덜란드 선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전쟁과 해적질처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교역”도, 즉 ‘동포 사이의’ 관계에서는 금지되었던 것까지도 ‘대외적 도덕’(Außenmoral)으로 허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종전에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대내적 도덕’과 ‘대외적 도덕’이 분리되어 있어서, 같은 혈연, 지연 집단 안에서는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따뜻한 온정과 동포애가 발휘되었으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사기, 도둑질을 자행하였으므로 윤리적인 보편주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내, 대외적으로 즉 신분, 혈연, 지연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경제생활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의 경제윤리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경제윤리에 기초해 있다.(최문환, p.44) 요컨대 자본주의 정신은 “엄격한 시민적 관점과 원칙을 갖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경제윤리에 입각한 정신이라는 것이다.

(q1.2.3.3.4.2) 무분별하고 아무런 규범과도 내면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영리활동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역사의 모든 시대에 존재했었다. 전쟁과 해적질처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교역도 이민족(異民族), 공동체 외부인과의 관계에서는 방해받지 않았고 ‘동포 사이의’ 관계에서는 금지되었던 것이 이런 관계에서는 ‘대외적 도덕’으로 허용되었다. 외면적으로 ‘모험가’로서의 자본주의적 영리활동이, 화폐적 재산형태가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이윤획득을 위해 [...] 사용하는 기회가 주어진 모든 경제

조직에 내재적이었듯이, 윤리의 제한을 무시하는 내면적인 모험가 정신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때로는 절대적이고 의무적인 무분별한 이윤추구가 바로 가장 엄격한 전통의 구속과 나란히 자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통이 파괴되고 사회조직의 내부에까지 자유로운 영리활동이 어느 정도 파고들었을 때에도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현상이 윤리적으로 긍정되거나 채택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단지 윤리적으로 무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환영할 만하지는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불가피한 것 정도로 관용되었을 뿐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윤리이론의 일반적 입장이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실천적 태도였다. [...] 그러한 태도가 바로 부르주아 자본주의적 경제조직의 제 전체에 적응하는 것을 도처에서 가로막은 가장 강력한 내면적 장애 중의 하나였다. (p.42-43/S.42-3)

(q1.2.3.3.4.3) 외면적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경제생활에 이러한 새로운 정신을 관철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전환을 이룬 사람들은, 경제사의 모든 시대에 볼 수 있는 무모하고 파렴치한 투기업자나 경제적 모험가들 또는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엄격한 시민적 관점과 ‘원칙’을 갖고, 냉정한 인생의 학교에서 자라나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특히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다.(p.52/S.53-4)

1.2.3.3.5 금욕주의적 직업윤리

(e1.2.3.3.5.1)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은 금욕주의적 직업윤리이다.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는 일정한 직업을 자신의 천직, 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쾌락이나 향락을 희생하면서 엄격한 규율과 조직 아래서 자기 자신의 직책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직업윤리에서는 개인적 허영 또는 자유로운 자기실현, 무제한한 개성의 발휘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것은 벌어들인 부의 생산적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적 사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이윤의 획득, 즉 화폐의 획득은 하나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몰두할 것을 요구한다. 빈부를 막론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 금욕적 직업윤리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도덕성이 어떤 윤리적

격률이나 종교적 사상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 즉 전통과 결별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계몽이 그러한 영리적 생활태도의 적합한 토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p.52)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베버에 의하면 이러한 금욕적 직업윤리는 루터와 칼뱅 등이 주도한 종교개혁 이후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칼뱅주의에서는 사회적 활동은 단적으로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봄으로써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 기초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화폐취득을 인간에게 의무적인 자기 목적, 즉 ‘직업(소명)’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시대의 윤리감각과 상치되는 것”(p.54)이었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은 일찍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독특한 직업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1.2.3.3.5.2)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특히 그것의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제1장 「문제」의 제2절 “자본주의 정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적 구성요소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한 요소인 그 ‘직업’ 사상과 [...] 직업 노동에의 헌신을 낳은 구체적인 ‘합리적’ 사고와 삶의 형식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에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모든 직업개념에 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직업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비합리적 요소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p.58) 서구인의 직업 개념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 요소,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찾아보는 것이 베버 자신의 핵심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q1.2.3.3.5.3) 현재의 경제에 고유한 구조와 기업형태를 가진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私法), 유통제도 아래서는 흔히 말해지듯 자본주의 정신은 순수한 적응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화폐증식의 ‘직업’(소명)에 대한 이러한 몰두를 필요로 한다.(p. 54 /S.55-6)

(q1.2.3.3.5.4)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 낭비적 향락에 반대해 왔고 소비, 특히 사치재 소비를 봉쇄해 버렸다. 반면에 이 금욕은 재화획득을 전통주의적인 윤리의 장애에서 해방시키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으며, 이익추구를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직접 신의 뜻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대한 질곡을 뚫고 나왔다. [...] 사경제적 부의 생산이라는 면에서는 금욕이 부정직함뿐만 아니라 순수한 본능적 소유욕과도 투쟁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유욕은 ‘탐욕’, ‘배금주의’ 등으로 비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궁극 목적으로 삼는 부의 추구이기 때문이었다.(p.136-7/S.190-1)

2. 직업

(e2.1) 세속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Beruf나 영어의 calling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종교적 관념, 즉 신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라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어감은 프로테스탄트가 우세한 민족들의 경우에 특히 잘 나타나지만, 고전적 고대에서나 가톨릭이 우세한 민족들에게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요컨대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개념은 중세 가톨릭 혹은 고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교개혁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티즘의 출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은 모든 프로테스탄트 민족의 일상어에서 세속적 직업을 가리키는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베버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비종교적, 세속적 문헌에서 이런 의미의 기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베버는 종교적 문헌에서는 ‘한 사람의 독일 신비주의자’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타울러(J. Tauler)이다. ‘직업’(Beruf)이라는 말의 현재적 의미가 성서의 번역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보는 베버는 덧붙여 그것이 원문의 정신이 아니라 ‘번역자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즉 여기에는 새롭고도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q2.2) 이미 독일어의 Beruf라는 단어에, 그리고 아마 보다 분명하게 영어의 calling이라는 단어에 종교적 내용이 적어도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말은 구체적인 경우에 강조하면 할수록 그 점은 보다 분명하게 감지된다. 그리고 그 말을 역사적으로 여러 문명 언어들과 비교하여 추적해보면, 이 말은 구체적인 경우에 강조하면 할수록 그 점은 보다 분명하게 감지된다. 그리고 그 말을 역사적으로 여러 문명 언어들과 비교하여 추적해 보면, 우선 드러나는 것은 주로 가톨릭적인 민족에게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색조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고전적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인 반면에 주로 프로테스탄트적인 모든 민족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 해당 언어의 어떤 인종적 특성, 예를 들어 ‘게르만의 민족정신’과 같은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의 그 말은 성격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성경 자체의 함축된 정신이 아니라 번역자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임이 드러난다. 그 단어(Beruf)는 <시락서>에 대한 루터의 번역 한 구절(11장 20, 21절)에서 현재 의미로 처음 사용된 것 같다. 그 이후로부터 곧 그 말은 모든 프로테스탄트 민족의 일상어에서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반면에 그 이전에는 어떤 세속적 문헌에서도 그와 같은 어의에 대한 단초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종교 문헌에서도 그러한 어의는 단지 루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한 사람의 독일 신비주의자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p.59-60/S.63-68)

2.1 고대어에서의 직업 개념

2.1.1 히브리어

(e2.1.1.1)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어 Beruf 또는 영어 calling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직업 개념은 고대나 중세 가톨릭에서는 없었다.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세속적 문헌에서도 그와 같은 어의에 대한 단초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베버는 아주 장황한 각주를 통하여 어원학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고대어 중에서 히브리어에만 독일어의 직업 (Beruf)이라는 말과 유사한 어감의 말이 있을 뿐이다.

(q2.1.1.2) 고대어 중에는 오직 히브리어만이 유사한 어조의 표현을 갖고 있다. 우선 히브리어 ‘근무’라는 말이 그렇다. 이는 성직자의 기능에 대해 사용되었다(<출애굽기> 35장 21절 <역대 상> 9장 13절 23장 4절 26장 30절).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일(특히 <사무엘 상> 8장 16절 <역대 상> 4장 23절 29장 6절), 궁정업무(<에스더> 3장 9절 9장 3절), 노동관리업무(<열왕기 하> 12장 12절), 노예의 일(<창세기> 39장 11절), 농경노동(<역대 상> 27장 26절), 수공업(<출애굽기> 31장 5절 35장 21절 <열왕기 상> 7장 14절), 상업(<시편> 107편 23절) 등에 사용되었으며 곧 언급하게 될 <시락서> 11장 20절에서는 모든 “직업노동”에 사용되었다. [...] <시락서> 11

장 20절에도 나오고 70인 번역에서 “과업”(=지정된 일, 할당된 일, 과제)이란 표현도 부역관료제의 어휘에서 유래된 것이며 “업”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이 말은 <시락서> 11장 20절에서 신의 계율 이행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 따라서 독일어의 ‘Beruf’와 유사하다. [...] (주지하다시피 <시락서>의 히브리어 원본은 소실되었다가, 웨흐터에 의해 재발견되어 부분적으로는 탈무드를 인용하여 보완한 것이다. 루터 당시에는 원본이 없었고 따라서 그의 어휘 사용에는 이 두 히브리어 개념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p.173-4/S. 63 각주)

2.1.2 희랍어와 라틴어

(e2.1.1.2.1) 베버에 따르면 희랍어에는 독일어의 Beruf에서와 같은 윤리적 색채를 띤 표현이 전혀 없다. 그리고 라틴어의 경우에는 다소라도 윤리적 색채를 띤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종교적 의미는 없고 전부 현세적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q2.1.1.2) 희랍어에서는 윤리적 색조를 갖는 그 독일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 [...] 라틴어에는 ‘직업’(Beruf)이라 번역되는 단어, 즉 (대체로) 인간에게 소득의 원천이자 지속적인 경제적 생존의 근거가 되는 지속적인 분업적 활동으로 번역되는 것이, 특수한 함축이 없는 ‘opus’가 있지만 그밖에도 독일어의 윤리적 내용과 어느 정도 유사한 색조를 갖는 것은 officium 또는 munus – 고대 시민공동체의 부역에서 파생된 말이다 –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professio가 있다. professio라는 말은 바로 공법적 의무, 즉 이전의 시민의 조세신고의무에서 유래되어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특히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업’(professio bene dicendi)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좁은 범위에서는 독일어의 ‘Beruf’란 말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전체적 의미를 갖는다. [...] 물론 이 말은 종교적 함축이 전혀 없는 철저히 현세적인 표현이다. [...] 로마계 언어 중에서 오직 스페인어의 ‘vocacion’만이 내면적인 ‘부름’(Beruf) 같은 뜻을 일부 갖는다. 이 말은 사제직에서 전화된 것으로 독일어의 의미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함축을 갖지만 외적인 의미에서의 ‘Beruf’라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p.174-5/S.64-5 각주)

2.2 루터의 직업 개념

2.2.1 세속적 의미로서의 Beruf

(e2.2.1.1) 직업을 의미하는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의 Beruf라는 말은 성경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성경 자체의 함축된 정신이 아니라 번역자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인데, 베버는 이 단어가 <시락서>에 대한 루터의 번역 중 한 구절(21장 20, 21절)에서 현재의 의미로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루터는 신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우리가 쓰는 세속적 직업의 개념으로 Beruf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다. 소명(Beruf)이란 말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세속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세속적인 일들을 포괄적인 종교적 영향권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재성, 「막스 베버의 경제윤리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83, p.36).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탄생한 이후 이 말은 모든 프로테스탄트 민족의 일상어에서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q2.2.1.2) 모든 사전들에 나타나 있고 또 필자의 동료인 브라우네(Braune)와 호프스(Hoops)가 친절히 확증해 주었듯이 루터의 성서 번역 이전에는 독일어 ‘Beruf’, 네덜란드어 ‘beroep’, 영어 ‘calling’, 덴마크어 ‘kald’, 스웨덴 어 ‘kallelse’ 등이 현재와 같은 세속적 의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Beruf와 같은 발음의 중세 고지 독일어, 중세 저지 독일어, 중세 네덜란드 어 등은 모두 오늘날 독일어의 Ruf와 같은 뜻이었으며, 특히 — 중세 — 성직 수여권자가 한 후보자를 성직에 ‘임명’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로서 스칸디나비아 어의 사전에도 특히 잘 드러난다. 루터도 그 말을 이런 의미로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의 이러한 특수한 사용이 그 말의 어의변화를 일으키는 데 일조했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근대적인 “직업” 개념의 성립은 언어상 성서 번역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것도 프로테스탄트의 성서 번역에 근거한다. [...] 영국의 경우 크랜머의 성서 번역이 Beruf=trade라는 의미에서 청교도의 ‘calling’ 개념의 근원임은 이미 머레이(Murray)가 지적한 바이다. 16세기 중엽부

터 calling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고 이미 1588년에는 “unlawful calling”이라는 말이 쓰였으며 1603년에는 고위직이라는 의미로 ‘great calling’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p.177-182/S.65 각주2)

2.2.2 종교적 의미를 갖는 노동

(e2.2.2.1) 베버에 따르면, 이미 16세기에 Beruf라는 말은 비종교적 문헌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즉 세속적 직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성립 이후에 본격화 된 것이다. 여기에는 말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에서도 새로운 것이 있었다. 세속적 직업 속에서의 의무 이행을 도덕적 실천이 취할 수 있는 최고 내용으로 중시했다는 사상은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세속적 일상 노동에 종교적 의의를 인정하는 생각을 낳았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직업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q2.2.2.2) 단어의 어미가 그러하듯이 그 사상도 새로운 것이며 종교 개혁의 산물이다. 물론 이러한 직업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세속적인 일상적 노동에 대한 평가의 일정한 단초가 중세, 더군다나(헬레니즘 말기의) 고대에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사실 하나는 세속적 직업에서의 의무이행을 도덕적 자기증명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내용으로 평가한 점이다. 이것 때문에 세속적인 일상적 노동이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발생했고 그러한 의미의 직업개념이 최초로 형성되었다. 이 교리는 도덕적 계율을 ‘명령’(praecepta)과 ‘권고’(consilia)로 나누는 가톨릭적 태도를 거부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승적 금욕주의를 통해 현세적 도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보았다.(p.60/S.69)

2.2.3 토마스 아퀴나스적 직업 개념 비판

(e2.2.3.1) 한때 가톨릭 수도원 생활을 한 루터는 처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에 대하여 중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라는 루터의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가톨릭 수도원 생활의 복음주의적 권고에 강하게 반대하게 된다. 루터에 따르면 수도원의 생활은 신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 아무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냉혹한 이기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노동 개념과 이에 기초한 토마스주의적 직업 개념으로 대표되는 가톨릭적 입장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이어지는 글에서도 계속된다.

(q2.2.3.2)루터에 있어 이러한 사상은 그의 종교개혁 활동의 첫 십년 동안에 발전되었다. 처음에 그는 예컨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듯이 현저히 중세적인 전통적 생각에서, 세속적 노동은 아무리 신에 의해 의욕된 것이라 해도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고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는 무관한 신앙생활의 불가결한 자연적 토대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라는 사상이 보다 분명하게 철저화되고 그림으로써 ‘악마에 의해 강제된’ 수도원 생활에 대한 가톨릭의 ‘복음주의적 권고’와의 대립이 점차 첨예하게 강조되자 직업의 중요성은 점점해 갔다. 수도승적인 생활방식은 이제 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가치할 뿐 아니라 세속적 의무를 회피한 이기적인 냉혹함의 산물로 여겨졌다.(p.60-1/S.69-71)

(q2.2.3.3)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의 신분적, 직업적 분류를 신의 뜻이라 주장했을 때 그는 사회를 객관적으로 조화된 우주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일정한 하나의 ‘직업’(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토마스 자신은 ministerium 또는 officium이란 말을 사용했다)에 지정돼 있다는 사실은 ‘자연적 원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똑같은 평가는 예컨대 ‘직업’에 대한 파스칼(Pascal)의 평가인, 직업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난다. [...] 토마스주의적 직업개념과 프로테스탄트의 직업개념과의 대립은 매우 분명하다.(p. 183 /S.70 각주1)

2.2.4 세속적 직업 노동의 의의: 세속적 의무의 이행

(e2.2.4.1) 이에 반해 세속적 직업 노동(die weltliche Berufsarbeit) 이야말로 루터에게는 형제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는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분업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관찰로 증명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베버에 따르면, 이는 분업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위해 노동하도록 한다고 지적인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명제 — “도축업자,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은덕 때문에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국부론 1장 2절) — 와 기이한 대조를 보이는, 본질적으로 스콜라적인 정초는 곧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세속적인 의무의 수행이야말로 신에게서 축복 받을 유일한 것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며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견해가 등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그 후 계속해서 점점 더 강조되어 갔던 것이다.

(q2.2.4.2) 이와 대조적으로 세속적인 직업노동은 이웃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여겨졌다. 물론 여기서 이웃 사랑은 세상물정과는 동떨어진 방식이었고, 특히 분업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위해 노동하도록 한다고 지적인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명제와는 대립되는 괴상한 방식으로 정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으로 스콜라적인 정초는 곧 사라지고 점차 다 음과 같은 지적이 강조되었다 즉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며,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p.61/S.71)

2.2.5 모든 직업의 동가치성

(e2.2.5.1) 앞서 살펴본 대로 루터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세속적인

의무의 수행이야 말로 신에게 축복받는 유일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반드시 평등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신은 만사를 네 손에 의해 움직이신다. 네 손에 의해 짜시고 아주 비천한 농토의 어떠한 업이라도 행하신다. 따라서 최대의 업도 최저의 업도 모두 동등하게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S.71, 주2)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사상은 루터 이전에 타울러(J. Tauler)에게서 발견된다. 세속적 직업 생활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해석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끼친 영향 중 하나인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에 대한 독일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 그는 아퀴나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에 대하여 중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 생활을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독일 신비주의자 타울러 사상의 영향으로 깨지게 된다. 타울러는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외쳤다. 신앙의 생활화를 가르치면서 “내가 성직자가 아니라 제화공이라면 나는 내가 만든 구두가 모든 구두의 본(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김재성, p.37) 바로 여기서 루터는 타울러의 신학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베버는 모든 직업을 동가치한 것으로 보는 개념이 사회의 신분제도가 신의 뜻이라 보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2.2.5.3 참조)

(q2.2.5.2) 세속적 의무의 이행은 모든 경우에 신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신의 뜻이며, 따라서 허용된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p.61/S.71)

(q2.2.5.3) 이러한 사상은 루터에 앞서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직업’(Ruf)을 가치상 동등시하는 타울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마스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는 독일 신비주의와 루터가 공통적이다. 이러한 대립이 표현되는 점은 토마스가 — 말하자면 명상의 도덕적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탁발승단의 관점에서도 — 바울의 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를 자연법에 불가결한 노동이 인류 전체에게가 아니라 단지 개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이다. 농민의 ‘농노노동’을 최하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동평가의 계층화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탁발승단의 특수한 성격에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직업을 동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신분질서를 신의 뜻이라 강조한 농부의 아들인 루터나 독일 신비가들에게는 모두 낯선 것이었다.(p.184-5)/S.71 각주2)

2.2.6 루터주의의 한계

(e2.2.6.1) 루터는 세속적 윤리를 경시하지 않고 도리어 세속적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세속적 직업노동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노동과 직업윤리에 깊은 의의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직업 노동을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각 개인은 그의 사회적 지위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일단 주어진 직업과 신분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는 ‘신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강조하였고, 이런 점에서 베버는 루터가 전통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버는 루터가 세속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 즉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구제된다고 하는 내면적 구제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신앙이 현실의 삶의 관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루터는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의 순응과, 세속적 권력에의 복종을 강조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직업윤리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적극적 직업윤리는 칼뱅에 의해서 금욕주의적 형태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2.2.6.1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련성 결여

(e2.2.6.1.1) 베버는 세속적 직업 생활에 대한 도덕적 규정이 종교 개혁의 업적, 특히 루터의 업적 가운데 후대에 끼친 가장 커다란 영향

중의 하나라는 것은 실제로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베버 자신이 말하는바 ‘자본주의 정신’과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베버에 따르면, 오늘날 종교 개혁의 성취를 가장 열렬히 칭송하는 어떠한 교파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까닭에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상징적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의 방식을 루터 자신부터가 격렬하게 거부할 것으로 본다.

(q2.2.6.1.2) 우선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컨대 루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과 연관하다는지 혹은 — 어떤 의미로든지 도저히 — 내면적으로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종교개혁의 ‘업적’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현재의 교파도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든 자본주의의 동조자가 아니다. 아마 루터, 스스로도 분명히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생각에 대한 모든 유사성을 단적으로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S.61-2/p.72)

2.2.6.2 전통주의로의 후퇴

(e2.2.6.2.1) 인간 생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강조하는 루터의 태도는 전통주의적 색채를 점차 진하게 띠기에 이른다. 즉 직업은 인간이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 그것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루터주의는 섭리의 신앙에 기초하여 신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동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루터는 결국 종교적 원리와 직업노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또는 원리적으로 결합시키지는 못하였다. 직업노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교인임을 확인한다는 칼뱅주의적 관념이 루터의 사상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p.188) “루터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인은 ‘직업을 통해서’(per vocatione) 신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안에서’(in vocatione)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p.189) 루터주의는 금욕적 의무에 비해 세속내적 의무를

경시하는 태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고 정부에 대한 복종과 주어진 생활 상태에 대한 순응을 설파했다. 그리고 루터의 직업 개념은 이미 타올러를 비롯한 독일신비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루터파는 어떤 의미에서 신비주의자들에 비해 퇴보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직업윤리에 대한 심정적인 기초가 신비주의자들의 경우에 비해 한결 불확실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노동의 의한 구원을 지향하는 금욕적 자기훈련의 경향을 위험시켰고, 따라서 루터와 루터의 교회는 그것을 더욱 뒤로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q2.2.6.2.2) ‘광신자’와 농민폭동에 대항해 싸우고 난 후 루터에게는 각자의 신으로부터 지정받은 객관적인 역사적 질서가 점점 신의 뜻의 직접적인 현시로 되어 갔기 때문에 삶의 사소한 일에서마저 섭리를 강조함으로써 점차 ‘운명’ 사상에 대응하는 전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켰다. 각자는 근본적으로 신이 일단 정해 준 그 직업과 신분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며, 지상의 노력은 주어진 삶의 지위가 정해 준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전통주의가 처음에는 바울적인 무관심의 산물이었다면 나중에는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주어진 처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동일시하는 점차 강화되던 섭리신앙의 결과였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는 루터는 근본적으로 새롭거나 원칙적인 근거에 입각하는 직업노동과 종교적 원리의 결합에 도달할 수 없었다. [...] // 이처럼 루터의 직업 개념은 전통주의적인 것에 머물렀다. 직업은 인간이 신의 섭리로 받은 것이며 그 섭리에 ‘순응하여야’ 한다. [...] 이러한 루터파의 성격을 지닌 직업사상은 독일 신비가들에게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루터에 있어 — 그리고 루터교회에 있어서는 더 심하다 — 합리적 직업윤리에 대한 심리적 토대가 신비가들보다(이점에 대한 신비주의적 태도는 여러 면에서 부분적으로 경건주의적 신앙 심리를, 또 부분적으로는 퀘이커파의 신앙 심리를 연상시킨다) 상당히 불안정해 있는 한에서 루터주의는 신비가들보다 퇴보한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루터가 금욕적 자기연마의 경향에 위선이라는 혐의를 두었고, 그러기에 루터교회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뒷전에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p.64-5/S.76-9)

2.2.7 탐구 과제의 변경: 루터주의에서 칼뱅주의로

(e2.2.7.1) 이처럼 루터는 ‘전통주의’적 성격을 지녔고, 따라서 자본주의에 적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활실천과 종교적 출발점의 관련은 세속적 직업에 대한 루터와 그의 교회가 갖는 태도에서 직접적으로는 도출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관련을 알기 위해서는 루터주의가 아니라 다른 프로테스탄티즘의 형태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좋다. 물론 베버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그 형태는 주지하디시피 칼뱅주의이다. 베버는 특히 칼뱅주의에서 유래된 영국 청교도주의(Puritanismus)가 직업상에 아주 일관된 종교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S.164) 루터의 직업 개념은 종교 개혁 후기에 나타난 여러 종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베버는 이들 다양한 종파들을 통칭하여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칼뱅주의, 감리회(메서디즘), 경건주의, 침례회 등이 있는데, 루터는 특히 칼뱅주의에서 독특한 직업윤리가 발전된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교 개혁은 애초에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문화적 결과로서의 직업윤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q2.2.7.2)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생활실천과 종교적 출발점간의 관련을 루터주의보다 쉽게 탐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고찰하는 것이 좋다. [...] 칼뱅주의와 여러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현저한 역할을 하였다. 루터가 츠빙글리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을 보았듯이 루터의 정신적 후예들은 특히 칼뱅주의에서 그러한 것을 보았다. 바로 그 때문에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은 칼뱅주의를 진정한 적으로 여겨 왔다.(p.66/S.79)

(q2.2.7.3) 그런 이유 때문에 옛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 칼뱅, 칼뱅주의, 그 밖의 다른 ‘청교도’교파 등의 저작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종교공동체의 창시자나 대표자 중의 한 사람에게서 ‘자본주의 정신’이라 불리는 것의 환기가, 필생의 작업의 목적으로 발전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속적 재화에 대한 추구가 그들 중의 누군가에 의해 자기 목적으로 생각되고 윤리적 가치로 통용되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들 모두

에 대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개혁 강령을 핵심적 관점으로 여긴 사람은 이 개혁가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윤리적 문화’ 단체의 창설자나 인도주의적인 사회개혁추구, 문화적 이상 등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영혼의 구원, 이것만이 그들의 생애와 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문화적 결과가 상당부분 종교개혁의 예상치 못했고 심지어는 원하지 않았던 작용결과였고, 종종 종교개혁이 상상하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대립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p.68-9/S.81-2)

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3.1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의 대표적 형태

(e3.1.1) 칼뱅주의는 프로테스탄트교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되는데, 그 이유는 칼뱅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내적 특질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칼뱅주의는 16-7세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정치투쟁과 문화투쟁을 가장 격렬히 수행하였고, 정치적 압박 또한 가장 심하게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칼뱅주의는 정치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순수성의 측면에서도 이념형적 고찰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q3.1.2)그런데 16세기와 17세기에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발달한 문화 국가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위대한 정치투쟁과 문화투쟁을 수행했던 것이 칼뱅주의였고 따라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신앙은 칼뱅주의이다.(p.75-6/S.87-8)

3.1.1 예정설

(e3.1.1.1) 베버가 칼뱅주의를 프로테스탄트교의 대표적 사례로 고찰할 때, 이 칼뱅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교리적 특징은 예정설(Lehre von der Gnadenwahl; doctrine of predestination)과 금욕주의(Askese asceticism)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예정설에 대해 살펴보자.

3.1.1.1 예정설에 대한 접근 방식

(e3.1.1.1.1) 베버는 예정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개혁파 교회의 본질적인 교리인가, 부수적인 교리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베버는 어떤 역사적 현상의 본질에 관한 문

제는 한편으로는 가치판단의 측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 당연히 후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인과적 요인으로서 다른 역사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져보는 관점, 즉 역사적 인과관계의 판단을 중시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예정설의 문화사적 영향의 의의를 관찰할 때 그것의 그 의미가 분명히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q3.1.1.1.2) 그 당시에(16세기와 17세기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재도 예정설이 가장 특징적인 칼뱅주의의 교리이다. 물론 예정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인지 아니면 ‘부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한 역사적 현상의 본질적인 면에 관한 판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치판단, 즉 신앙판단이다. - 그 현상 중 ‘관심을 끄는 면’이나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면’만이 본질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그 현상이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갖는 ‘인과적’ 중요성이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역사적 인과구명이다. 이 책에서처럼 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 문화사적인 영향에 따라 그 교리에 어떤 중요성이 매겨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영향력은 분명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76 /S.88-9)

3.1.1.2 예정설의 역사적 영향

(e3.1.1.2.1) 영국 국교회의 분열이 항구화한 것도, 그리고 왕실과 청교도가 교리상 서로 대립한 것도 바로 이 예정설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예정설은 칼뱅주의가 국가에 위험한 존재로 보이게 된 제1의 요소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정부의 공격을 받곤 했다. 뿐만 아니라 예정설은 18-19세기를 통하여 갖가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대규모 신앙 부흥의 함성이 되기도 하였다.

(q3.1.1.2.2) 올덴바르네펠트가 영도한 문화투쟁은 이 교리에 부딪혀 와해되었고 왕실과 청교도주의가 - 바로 이 예정설에 관해 - 교리 상으

로 분열된 이래 제임스 1세 치하에서 영국 교회의 분열이 화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대체로 무엇보다도 예정설 때문에 칼뱅주의가 국가에 위험하다는 견해가 나왔고 당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17세기의 대규모 종교회의의 특히 도르트레히트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소규모 종교회의의 핵심의제는 예정설에 표준교리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전투적 교회’의 수많은 영웅들이 그 교리를 확고한 발판으로 삼았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는 그 교리가 교회의 분열을 야기했고 거대한 신앙부흥에 합성의 역할을 했다.(p.76/S.89-90)

3.1.1.3 예정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e3.1.1.3.1) 베버는 예정설을 “이 세계의 일과 인간생활의 모든 일이 신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어서 신의 의지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는 사상”(『직업으로서의 학문』,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1994, p.142)이라 기술하는데 이러한 교리는 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의지로 미리 정해진다는 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베버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권위 있는 준거로서 1647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의 일부를 인용한다.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4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25명의 소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영국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동 신앙 고백서이다. 1647년 영국의회에서, 그리고 1649년에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인준되었다. 전문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백”의 교리적 입장은 단적으로 청교도적 칼뱅주의이다.

(q3.1.1.3.2) 9장(자유의지에 관하여) 3절: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정신적 선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지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선을 완전히 저버리고 죄 속에서 죽는 자연적 인간은 회개할 수 없으며 아니면 회개를 준비할 수조차 없다. // 3장(신의 영원한 결단에 관하여) 3절: 신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 당신의 결단으로 어떤 이는 [...] 영원한 삶으로 예정하셨고 또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5절: 인류 중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은, 세계의 토대가 세

위지기 전에 신이 당신의 영원하고 불변적인 의도와 은밀한 결의와 임의적인 의지에 따라 그리스도 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한 자들로서 이는 순수하게 자유로운 은총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예를 들어 신앙이나 선행 또는 이것 중의 하나에 대한 지속 그 밖의 피조물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등에 대한 기대가 그러한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7항: 신은 당신의 피조물을 능가하여 당신의 무한한 힘을 원하시는 대로 칭송하기 위해 당신이 은총을 베풀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헤아릴 길 없는 의지의 권고에 맞추어 나머지 인간들을 그 죄에 대한 치욕과 분노로 정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찬미하심을 기뻐하신다.(p.77/S.90)

(q3.1.1.3.3) 10장(유효한 소명에 관하여) 1절: 신은 당신이 정하신 생명으로 정하신 자들, 오직 그들만을 당신이 정하신 알맞은 시간에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유효하게 소명하심을 기뻐하신다. [...] 그리하여 신은 그들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치우시고 보다 신선한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그들을 의로움에 정하신다. [...] // 5장(섭리에 관하여) 6절: 의로운 심판자이신 신께서 그 이전의 죄 때문에 눈멀게 하시고 모질게 만드신 악하고 신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오성을 밝히고 감동케 할 수 있는 당신의 은총을 거둬들이셨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천성도 거둬들이사 그들의 타락이 죄악의 기회를 만들 그러한 대상과 그들을 관계시키며 더 나아가 그들을 자신의 욕정, 세계의 유혹, 사탄의 힘 등에 맡겨 버리신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신께서 다른 이들을 유순케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수단에 의해 더욱더 모질어진다. (p.77-8/S.90)

3.1.1.4 예정설과 칼뱅주의: 칼뱅주의 예정설의 성립

(e3.1.1.4.1) 예정설과 관련하여 베버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 교리의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지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베버는 이 교리가 어떻게 성립하였고, 칼뱅주의 신학과 어떠한 사상적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베버에 따르면, 예정설은 기독교 역사상 되풀이되어 온 것으로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 있어서 종교적 구

원의 감정은, 모든 것이 순전히 객관적인 힘의 작용에 기인하지 결코 인간의 가치 태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각과 결부되어 있었다. 루터도 『기독교의 자유』를 썼던 당시에는 신의 ‘은밀한 결단’이 스스로가 은혜의 지위에 도달하게 된 절대 유일의 근원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후에도 그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고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상은 그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 있는 교회정치가로서 ‘현실 정치적’으로 되어가면서 점차 더욱 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칼뱅에게는 그 과정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즉 교리 논쟁이 진행될수록 예정설은 그에게 중요성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된다. 오로지 ‘신으로만 쏠리는’ 그의 종교적 관심이 사상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되어 감에 따라 그 의의는 더욱 증대하였다.

(q3.1.1.4.2) 루터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쓸 수 있었던 그의 종교적 천재성이 최고로 발휘된 시기에 그 역시 신의 ‘은밀한 결단’이 자신의 종교적 은총을 가장 확고히 보장하는 이유 없는 절대 유일의 근거로 여겼다. 이후에도 그는 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 물론 그가 책임 있는 교회정치가로서 점차 ‘현실 정치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그 사상은 그에게 있어 중심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멜란히톤은 이 ‘위험하고 어두운’ 이론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에 채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루터교의 교부들은 은총이 상실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참회의 마음으로 받들고 신앙으로 믿는다면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리로서 확립하고 있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칼뱅에 있어서는 교리상의 적대자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그 이론의 중요성이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어졌다. 그 이론은 그의 『그리스도교 강요』의 제 3판에 가서는 완전히 발전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도르트레히트와 웨스트민스터의 종교회의가 종식시키려 했던 대규모 문화투쟁에서는 중심적 위치를 얻게 되었다. 칼뱅의 경우 이 ‘가공할 신의 결정’은 루터에 있어서처럼 체현된 것이 아니라 안출된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만 쏠리는 그의 종교적 관심의 방향에서 사상적 철저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이론의 중요성은 더해 갔다. (p.78-9/S.91-2)

3.1.1.5 칼뱅주의 예정설의 주요 특징

3.1.1.5.1 신과 인간의 관계: 신의 ‘비인격성’(inhumanity)과 불가지성

(e3.1.1.5.1.1)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말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전통적 문제에 대하여 신의 구원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예정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며 변경 불가능한 영역이다. 운명을 변경하거나 알고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이처럼 예정설에서 신의 존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변모하며, 모든 피조물은 “메울 수 없는 심연으로” 신과 격리되어 있다. 여기서 신의 이러한 극단적 비인격성과 함께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의 영역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신에 대한, 특히 신의 구원의 영역에 대한 불가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정설의 교리는 무한한 신의 영역에 대한 숙명론적 포기(김은영, 「막스 베버의 종교윤리와 경제 행동의 관련 해석에 대한 연구」, 1997, p.21)를 낳게 되는데, 예정설에서 신은 모든 인간적 이해가 미치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되어 버린다.

(q3.1.1.5.1.2) 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 있는 것이며, 모든 것 – 따라서 칼뱅이 결코 의심치 않았던,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도 – 은 오직 신의 위엄을 영광케 한다는 목적의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만이 자유롭고, 즉 아무런 법칙에도 종속되지 않고, 신의 결단은 당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한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정의’의 척도로 신의 지고한 섭리를 측정하려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신의 위엄을 침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이러한 단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밖의 모든 것 – 우리의 개인적 운명이 갖는 의미 – 은 어두운 비밀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것을 탐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도 외람된 것이다. 예컨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자신의 운명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짐승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했음을 불평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메울 수 없는 심연으로 신과 갈라져 있으며, 신이 당신의 위엄을 영광케 하기 위해 다른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의 일부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저주받았다는 사실뿐이다. [...] 다시 찾은 은화 한 닢을 기뻐하는 여인처럼 한 죄인이 회개를 기뻐하는 인간적으로 이해된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모든 인간적 이해능력을 떠나 영원한 과거로부터 전혀 헤아릴 길 없는 결정에 따라 각 개인에게 그 운명을 나누어 주고 우주의 가장 사소한 것마저 정해 버린 초월적 존재가 된다. 신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으므로 신의 은총은 그 은총을 받은 자가 잃을 수 없고, 그 은총을 거부당한 자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p.79-80/S.92-3)

3.1.1.5.2 구원의 문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신의 영원한 결단

(e3.1.1.5.2.1) 예정설의 교리적 내용의 전거가 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9장 3절은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정신적 선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지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선을 완전히 저버리고 죄 속에서 죽는 자연적 인간은 회개할 수 없으며 아니면 회개를 준비할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원죄에 의한 인간의 전적(全的)인 무능력(無能力)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이 교리는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며, 전연 신을 경애할 수 없고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성, 「막스 베버의 경제윤리 연구」, 1983, p.45)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신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결단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혹은 죽음으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다(3장 3절).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영생활 자와 멸망할 자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신의 영원한 결단(Eternal Decree)이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다는 것은 순전히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

으로 이룩된 것이며, 결코 신앙이나 선행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신의 결단은 반복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총은 그 은총을 받은 자가 잃을 수 없고, 그 은총을 거부당한 자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S.93)

(q3.1.1.5.2.2) 3장(신의 영원한 결단에 관하여) 3절: 신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 당신의 결단으로 어떤 이는 [...] 영원한 삶으로 예정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였다. 5절: 인류 중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은, 세계의 토대가 세워지기 전에 신이 당신의 영원 하고 불변적인 의도와 은밀한 결의와 임의적인 의지에 따라 그리스도 중 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선택한 자들로서 이는 순수하게 자유로운 은총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예를 들어 신앙이나 선행 또는 이것 중의 하나에 대한 지속 그 밖의 피조물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등에 대한 기대가 그러한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7항: 신은 당신의 피조물을 능가하여 당신의 무한한 힘을 원하시는 대로 칭송하기 위해 당신이 은총을 베풀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헤아릴 길 없는 의지의 권고에 맞추어 나머지 인간들을 그 죄에 대한 치욕과 분노로 정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찬미하심을 기뻐하신다.(p.77/S.90)

3.1.1.6 예정설의 실천적, 심리적 영향

3.1.1.6.1 개인의 내적 고립감

(e3.1.1.6.1.1) 신의 영역에 대한 불가지성과 개인의 무기력함 속에서 예정설의 세대가 맞이한 결과는 각 개인의 전례 없는 내면적인 고립화 감정이었다. 신은 이미 인간 개인의 운명을 정했으나 그는 신이 정한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태초로부터 정해진 운명을 개인은 홀로 갈 수밖에 없으며, 어느 누구 혹은 무엇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 설교자도, 성례(聖禮 ; sacrament)도,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다. 설교자가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선택자만이 신의 말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성례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주관적 신앙의 외적인 보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도 구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외형상의 교회에는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하여 교회 규율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점, 즉 교회나 성례에 의한 구원의 완전한 폐기야말로 가톨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이는 루터주의에서는 결코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었다.

(q3.1.1.6.1.2) 이 이론은 그 격앙된 비인간성을 통해 그 장엄한 결론에 몸을 맡긴 한 세대의 감정에 낳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전대미문의 개인적인 내적 고립감이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인간들에게 결정적이었던 삶의 관심사, 즉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인간은 태초로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을 향해 홀로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다. 설교자도 도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된 자만이 신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례(聖禮)도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성례가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신이 명령한 것이므로 엄수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의 은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신앙의 ‘외적 보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도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결코 신의 선택을 받은 자에 속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유효하지만, 신의 버림을 받은 자도 외적인 교회에는 속하며 또한 속해야 하고 규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 이는 불가능하다 — 그들도 신의 영광을 위해 신의 계율[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조차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에 불과하며, 신은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을 결정했기 때문이다.(p.80-1/S.93-4)

3.1.1.6.2 성례의 소멸: 탈마법화의 완결

(e3.1.1.6.2.1) 예정설이 평신도들에게 확산되면서 성례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례의 폐기는

가톨릭과의 결정적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루터주의에서는 철저하지 못한 것이었다. 예정설이 불러일으킨 개인의 내적 고립감 속에서, 신과 개인 자신의 관계는 직접적 대면 관계로 설정되었다. 신과 자신과의 직접적 대면이란 신과 자신을 연결하는 모든 중간 매개물을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즉 중세의 고해성사나 성례, 교회의 제도 등은 개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신과의 대면적 관계 설정은 종교 행위의 역사에서 성례와 교회의 폐지를 불러왔다. 베버는 이 과정에서 마침내 탈주술화, 탈마법화의 완결을 본다. 베버는 주술을 구원 수단으로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 즉 세계의 탈마법화가 가톨릭에서는 청교도적 경건 성에서와 같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가톨릭에서 사제는 변체(變體) 기적을 수행하고 천국의 열쇠를 장악하였던 주술사 또는 마술사였다.(p.91/S.114)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가 아주 발달한 지역에서는, 원래는 칼뱅이 성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염려했을 뿐인 개인적 고해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p.82) 죄의식을 진정시키던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개인의 내적 고립감과 더불어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성례 소멸이 일상의 윤리적 실천에서 가져온 영향은 뒤에서 이어지는 논의에서 살펴 볼 것이다.

(q3.1.1.6.2.2) 옛 유대의 선지자에 의해 시작되고 헬레니즘의 과학적 사고와 결합되어 모든 마술적 구원 추구 수단을 미신과 불경(不敬)으로 비난했던 저 위대한 종교사적 과정, 즉 세계를 마법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은 여기서 그 결말을 본다. 독실한 청교도는 매장을 할 때에도 모든 종교적 예식의 흔적마저 거부했고 이웃을 노래나 음악도 없이 매장했다. 그것은 단지 마술적, 성례적 종류의 구원효과, 즉 ‘미신’을 믿지 않기 위해서였다. 신이 은총을 거부키로 결정한 자에게 다시 은총을 얻게 해주는 마술적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대체 수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p.81/S.94-5)

3.1.1.6.3 감각적 문화에 대한 배척: 개인주의의 형성

(e3.1.1.6.3.1)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태초로부터 정해진 운명을 개

인은 홀로 갈 수밖에 없으며, 어느 누구 혹은 무엇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 베버는 예정설의 세대가 맞이한 이러한 전대미문의 개인적 고립감을 서구 근대인의 개인주의적 경향과도 결부시키고 있다. 즉 개인으로서 느끼는 내면적 고립은 모든 육체적, 감정적 요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모든 감각적 문화(sensuous culture) 일반을 근본적으로 적대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적 문화에 대한 청교도주의의 이 같은 적대적 태도는 근대 사회의 ‘비환상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개인주의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예정설은 인간을 내면적으로 고독케 하여 독특한 개인주의적 태도를 배양케 하였다. 베버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버니언(Bunya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 가장 단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책에는 자신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에 즉시 천국의 순례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고 가족들을 뿌리치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광야를 가로질러 뛰어나는 한 기독교인이 묘사되고 있는데, 베버에 따르면 여기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충실한 청교도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q3.1.1.6.3.2) 모든 피조물이 신과 무한히 멀리 있고 또 무가치하다는 단적인 이론과 결합되어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 고립은, 한편으로 문화와 주관적 종교성에 내재하는 모든 육체적, 감정적 요소에 대한 청교도주의의 절대적인 부정적 태도의 근거가 되었고 —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는 구원에 무익하고, 감각적인 환상과 피조물 숭배적 미신을 장려하기 때문에 — 따라서 모든 감각적 문화 일반에 대한 근본적 혐오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립은 다른 한편으로 청교도주의적인 과거를 가진 민족의 ‘국민성’과 제도에서 오늘날에도 작용하고 있는 저 비환상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색조의 개인주의(disillusioned and pessimistically inclined individualism)의 뿌리가 되었다. 이는 후에 ‘계몽주의’가 인간을 보던 관점과는 전적으로 당혹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예정설의 이러한 영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대의 생활방식과 인생관에서 분명히 감지되며 더욱이 그것의 교리적 타당성이 이미 사라진 곳에서조차 감지된다. // [...] 칼뱅주의자들은 신과의 교섭을 깊숙한 내면적 고립상태에서 수행했다.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의 특수한 결과를 직접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널리 읽힌 순수한 청교도적 문헌인 버니언의 『천로역정』 중에서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각성을 하고 하늘의 도시로 지체 없이 순례를 떠나라는 부름을 받아 ‘기독교도’가 서두르는 행동에 대한 묘사를 보면 된다. 처자식이 붙잡는 데도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이다.(p.81-3/S.95-7)

3.1.1.6.4 세속적 직업 노동에 대한 의미부여

3.1.1.6.4.1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세속적 직업 노동

(e3.1.1.6.4.1.1) 칼뱅주의 예정설은 근대적 인간형 곳곳에 긴장과 불안감을 심각하게 조장하였다. 이것은 앞서 말한 성례 폐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칼뱅주의를 신봉한 신도들은 깊은 내면적 고립화 속에서 신과 교섭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속적 직업노동(die weltliche Berufsarbeit)이 종교적 불안감의 진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S.106) 칼뱅주의 예정설에 따르면 현세는 신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다. 선택된 기독교인은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 신의 계명을 수행하여 오로지 그의 영광을 증대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신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는 사회적 실행이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그 형성이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은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이 되는 것이며, 현세 전체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노동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루터가 표방했던 분업에 기초한 직업노동은 ‘이웃사랑’(형제애)으로부터 도출되었지만, 루터의 사상은 아직 불확실한 사상적 단초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칼뱅주의에 이르러서는 윤리체계의 한 특징적 부분을 이루게 된 것이다.

(q3.1.1.6.4.1.2) 세계는 오직 신의 자기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기독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세계에 신의 영광을 각자의 몫만큼 증대시키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신은 기독교도의 사회

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그 형성이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칼뱅 교도들의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in majorem gloriam Dei) 활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노동도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미 우리는 루터에게서 ‘이웃사랑’으로부터 분업적 직업노동의 도출을 보았다. 그러나 그에 있어 보다 불확실하고 순수한 구성적, 사상적 단초에 머물렀던 것이 칼뱅주의자에 와서는 그들의 윤리체계의 특징적 일부가 되었다. [...] 그 경우 이웃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물적이고 비인격적인 성격, 즉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우주의 합리적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성격을 띠게 된다. 성서의 계시에 따라 그리고 자연적 통찰에 따라 인류의 ‘효용’에 봉사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이 우주의 놀라운 합목적적 형성과 질서는, 이러한 비인격적인 사회적 효용을 위한 노동이 신의 영광으로서 장려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신이 의욕한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p.84/S.99-100)

3.1.1.6.4.2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 수단으로서의 직업 노동

(e3.1.1.6.4.2.1) 베버는 칼뱅주의의 숙명적이며 체념적 교리들이 어떻게 하여 자본주의 초기의 영웅적인 상공업자들과 친화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평신도에게 제기된 “어떻게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직결된다. 그러나 칼뱅주의 신학이 이에 대답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신앙’뿐이었다. 이러한 답변이 평신도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상, 그들은 적어도 칼뱅처럼 은총이 가져오는 지칠 줄 모르는 믿음 자체가 구원을 증명한다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구원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존재 여부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칼뱅주의 신학의 입장은 이와 같은 질문을 기본적으로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목회적 권고’를 통해 완화해보고자 했다. 완화책으로 부각된 것은 두 가지의 상호 결부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그 첫째는, 누구라도 자신을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의심을 악마의 유혹으로 단정하여 무조

건 그리고 의무적으로 거부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부단한 직업노동이 자기 확신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이 두 번째 ‘권고’에 따르면, 직업 노동에 의해서만 종교적 의심이 사라지고 은총의 확실성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구원에 대한 증거에 집착하는 평신도들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답변은, 세속적 노동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세속적 직업 노동이, 이를 떼면 종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은 개혁과 종교의 오랜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q3.1.1.6.4.2.2) 적어도 ‘각자의’ 구원 문제가 제기되는 한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 은총의 표시를 나타내는 자기증거라는 칼뱅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물론 칼뱅주의의 정통교리가 원칙적으로 이 입장을 명백하게 포기한 적은 결코 없다.) 특히 모든 면에서 그 교리가 낡은 고통과 관련되어 있었던 목회활동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 경우 구원의 선택을 달리 해석하고 완화시키고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특히 두 가지 상호결부된 목회적 권고가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첫째는 자신을 선택된 자로 여기고 모든 의심을 악마의 유혹으로서 거절하는 것이 단적으로 의무화된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불충분한 신앙의 결과이고 따라서 은총이 불충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실히 하라’는 사도의 권고가 여기서는 일생의 투쟁에서 자신의 선택됨에 대한 주관적 확신과 증명에 도달하라는 의무로 해석되었다. 루터가 은총을 약속했던 죄를 회개하고 신을 믿는 참회하는 죄인 대신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영웅적 시기의 강철같이 굳건한 청교도 상인에게서 볼 수 있고, 현재에도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성도’가 육성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자기 확신에 ‘도달’키 위한 가장 탁월한 수단으로 부단한 ‘직업노동’이 엄명되었다. 이러한 노동만이 종교적 회의를 쫓아 버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p.86-7/S.104-6)

3.1.1.6.4.3 ‘유효한 소명’으로서의 직업 노동

(e3.1.1.6.4.3.1) 앞서 논의한 것을 정리를 겸해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자. 칼뱅주의에 있어서 현세는 신의 영광을 빛나게 하

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칼뱅주의자들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신의 율법을 완전히 실행함으로써 현세에서 신의 영광을 빛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세에서 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칼뱅주의자들은 사회적 활동에서 신의 영광을 증대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 직업은 신의 소명이어서 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 칼뱅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정설에 입각한 선택의 문제였다. 즉 “나는 선택됨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선택됨을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칼뱅주의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확신하여야 하는데,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는 신앙이 부족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자신이 선택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의심 혹은 의혹을 악마의 유혹으로 보아 배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 확신이 다만 신앙에서만 나타나서는 아니 되는데, 왜냐하면 칼뱅은 따르면 순수히 주관적인 심정이 아무리 숭고, 지순하다 해도 그것은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은 ‘유효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동시에 구원에의 소명은 ‘유효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칼뱅교도들은 ‘유효한 소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직업 노동을 통한 성과에서 구원의 확증을 얻어야 한다.

(q3.1.1.6.4.3.2) 인간의 영혼에 신성이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의 절대적 초월성에 입각해 배제되었다. 즉 ‘유한은 무한에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신과 은총 받은 자들 간의 합일은 오직 신이 그들 안에 작용하고(operatur)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경우 — 즉 그들의 행위가 신의 은총에 의해 결과된 신앙에서 유래하고, 다시 이 신앙이 그 행위의 특질을 통해 신의 결과로 정당화되는 경우 — 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 점에 모든 실천적 종교심 일반을 분류하는 데 적용되는, 결정적인 구원상태의 차이가 표현되고 있다. 종교적 대가들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성령의 그릇이라 느낌으로서 확신하든가 아니면 성령의 도구

라는 느낌으로써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의 종교생활은 신비주의적인 정감적 문화로 기울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금욕적 행위로 기울었다. 첫 번째 유형에는 루터가 가까이 있었고 두 번째 유형에는 칼뱅주의가 속했다. 물론 개혁신교도들도 ‘신앙만으로’(sola fide) 구원받기 원했다. 그러나 이미 칼뱅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단순한 감정과 기분은 그것이 아무리 숭고해 보일지라도 기만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은 그것의 객관적 ‘결과’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신앙은 ‘유효한 신앙’(fides efficax)이어야 하고 구원에의 소명은 ‘유효한 소명’(effectual calling)이어야 한다. (p.88-9/S.108-9)

3.1.1.6.5 생활의 조직화와 합리화

(e3.1.1.6.5.1) 유효한 신앙을 갖자면 신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데 봉사하는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신은 세계의 합목적적 질서를 욕구하기 때문에 칼뱅주의자는 생활에 합목적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질서지어야 한다. 즉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선택되었는가, 버림받았는가’의 선택 앞에 서서 조직적인 자기심사[‘체계적인 자기검토’]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 심사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결합된 선행의 생활[‘체계로 끌어올려진 선한 생활([a life of good works combined into a unified system])’이 요구되었다. 성도들의 생활은 오로지 구원이라는 초월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현세의 생활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 지배되고 현세의 과정에서 철저히 합리화되었다. 전체로서의 생활태도에 통일적 방식을 주고자 생활의 철저한 합리화를 기도한 17, 8세기의 시도들이 ‘엄격주의자’나 ‘메서디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q3.1.1.6.5.2) [...] 선택된 자만이 실제로 유효한 신앙을 가지며 그런 자만이 부활과 그에 따른 전 생애의 성화에 힘입어 가상적이 아닌 현실적 선행을 통해 신의 영광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품행이 - 적어도

기본적 성격과 지속적 의도에 따라 —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에 살아 있는 힘에 근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이 의욕한 것일 뿐 아니라 우선 신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면 그는 이러한 신앙이 추구했던 최고선, 즉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선행이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선행은 선택의 표지로는 불가결한 것이다. 선행은 구원을 얻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의 불안을 떨쳐버리는 기술적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은 종종 ‘구원에 불가결한’ 것이라 표현되거나 ‘구원의 소유’와 결부되었다. 그런데 근본에 있어 이것이 실천적으로 의미했던 것은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 따라서 종종 표현되듯이 칼뱅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 — 정확히 말해 구원의 확신 — 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창조는 가톨릭의 경우처럼 개개의 공적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선택되는가 버림받는가라는 양자택일 앞에서 체계적인 자기 검토에 있는 것이다.(p.90/S.110-1)

(q3.1.1.6.5.3) 칼뱅주의의 신은 신도에게 개별적인 ‘선행’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체계로 끌어올려진 선한 생활 요구했다. 죄, 회개, 속죄, 평안 또 다시 새로운 죄 사이의 지극히 인간적인 가톨릭의 기복(起伏)이라든지, 전 생애의 결산을 현재적 형벌로 속죄하고 교회의 구원수단을 통해 청산한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상인의 윤리적 실천은 그 무계획성, 비체계성을 벗어 버리게 되었고 전 생활 방식의 일관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메서디스트(방법주의자)’라는 명칭이 18세기 청교도 사상의 마지막 위대한 부흥에 붙여졌고, 또 17세기의 그 정신적 선구자에게 철저히 같은 종류의 의미를 지닌 ‘엄격주의자’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순간 모든 행동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 고양시키는 은총의 작용이 보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p.92/S.114-5)

3.1.1.6.6 금욕주의적 성격의 부여

(e3.1.1.6.6.1) 이처럼 칼뱅주의자들은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행위를 조직적으로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반성에 의해 인도되는 생활이야말로 자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라 생

각되었다. 끊임없는 생활의 반성과 합리적이고 조직적 생활 태도, 한마디로 합리적, 금욕적 태도는 중세의 수도원 계율에서 발전한 것인데, 이는 “자연적 상태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충동과 현세 및 자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또 인간을 계획적인 의도에 의하여 통제하고 인간의 행위를 끊임없는 자기억제와 도덕적 반성 밑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116) 이러한 합리적 금욕은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유로운 쾌락을 극복하는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생활에 질서와 규율을 주는 것이다.(최문환, 『웨버』, 지문각, 1967, p.57) 이러한 금욕적 태도는 일찍이 중세 수도원에서 강조되었던 것이지만, 칼뱅주의자들의 합리적 금욕은 일반 대중에 의한 세속적 금욕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계속되는 논의에서 이점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q3.1.1.6.6.2) ‘성도’의 삶은 오직 초월적 목적인 구원을 향해 있으며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세의 과정에서 철저히 합리화되고 오로지 한 가지 관점, 즉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더한다는 관점에서 지배된다. — 그리고 삶이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omnia in maiorem dei gloriam)라는 관점에서 이 보다 더 절실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반성을 통해 인도된 삶만이 자연 상태의 극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당대의 청교도들에 의해 윤리적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다. 이제 이러한 합리화는 개혁파 신앙에 특수한 금욕주의적 특징을 부여했고 가톨릭과의 특정한 대립과 더불어 내적 유사성을 근거 지었다.(p.92/S.115-6)

3.1.2 금욕주의

3.1.2.1 금욕주의의 유래

(e3.1.2.1.1)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세속적 금욕주의의 유래의 중세 가톨릭 수도원의 금욕적 생활에서 찾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금욕주의의 기원은 바울의 기독교적 원시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정

착시킨 가톨릭 수도원의 금욕주의를 루터가 이어받고, 칼뱅주의 청교도가 이를 다시 세속으로 끌어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베버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금욕주의가 완전히 합리적 성격을 띠고 나타났으며 이점에서 동양의 수도 생활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러한 ‘체계적으로 형성된 합리적 생활방식’은 인간을 계획적인 의지의 지배에 복종시켜 그의 행위를 부단한 자기 통제와 윤리적인 사색 안에 두고자 했다. 그런데 베버에 따르면 종교적 의미에서 이러한 합리적 삶을 살아간 사람은 비로 수도승뿐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수도승에게 금욕은 세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떼어놓는 결과가 된다. 즉 “금욕이 한 개인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잡을수록 그는 더욱더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갔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은 바로 세속적 윤리의 극복에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을 최초로 배척한 것은 루터였고 칼뱅주의는 이를 물려받았을 뿐이다.(p.95) 계속 논의에서 잘 드러나겠지만, 물론 칼뱅주의는 그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내용이 덧붙었다.

(q3.1.2.1.2) 기독교적 금욕주의는 분명 외관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극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미 그것의 합리적 성격이 중세에 최고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또 많은 면에 있어 이미 고대에도 나타났던 것이다. 서양에서 수도승적 생활방식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동양의 수도생활과는 달리 - 물론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일반적 유형에서 - 이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서양의 수도승적 생활방식은 원칙에 있어 이미 성 베네딕트의 규칙에서, 그리고 클루니파에서는 그보다 더, 시토파에서는 그보다 한층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수이트에서는 결정적으로 무계획적 은둔과 대가인 척하는 고향에서 해방되었다. 그 생활방식은 체계적으로 형성된 합리적 생활방식의 방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비합리적 충동의 힘과,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의존을 탈피케 하여 계획적 의지의 우선성에 부속시킴으로써 그의 행위를 지속적인 자기통제와 그 행위의 윤리적 효과의 속고 아래 두는 것이며 - 객관적으로 - 수도승을 신의 왕국에 봉사하는 노동자로 교육시키고, 그리하여 다시 - 주관적으로 - 그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 능동적 - 자제는, 성 이그나티우스의 ‘훈육’이 목적이자 매

우 합리적인 형태의 수도승 덕목 일반의 목적이었고 또한 청교도주의의 결정적인 생활실천의 이상이였다.(p.92-3/S.116)

3.1.2.2 가톨릭 금욕주의와의 비교

3.1.2.2.1 세속적 노동에 대한 근본 태도의 차이

(e3.1.2.2.1.1)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를 가톨릭의 금욕주의와 비교하기 위해, 중세 가톨릭 신도의 생활을 이념형적으로 상정한다. 중세 가톨릭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손에서 입으로의’ 생활, 즉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영위하였다.(p.90) 기본적인 생활만 영위된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불필요했다. 가톨릭의 생활윤리에서 세속적 노동은 아무리 신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라 해도 피조물에 속하는 것이었고, 불가피한 자연적 토대에 지나지 않았다.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외의 세속적 노동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면서, 각자는 자신의 생업에만 종사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 이윤추구는 ‘신에게 버림받는 자의 몫’이었다. 칼뱅주의는 금욕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적극적인 것을 추가했다. 즉 세속적 직업생활에서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p.95) 베버에 따르면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적 가치는 더 이상 빛을 잃게 되었다. 세속적 노동에 대한 거부는 열렬한 찬양으로 바뀌었고, 세속적 노동을 통한 금욕주의가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칼뱅주의는 세속적 의무를 강조한 루터의 관점을 물려받았으며, 동시에 그것에 적극적인 것을 추가했다. 루터에 따르면 “수도승적인 생활방식은 이제 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가치할 뿐 아니라 세속적 의무를 회피한 이기적인 냉혹함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속적인 직업노동은 루터에게는 이웃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여겨졌다. 칼뱅주의는 세속적 직업 노동 안에서 신앙을 증명한다는 적극적인 것을 여기에 추가하였다.

(q3.1.2.2.1.2) 종교적 의미에서 방법적으로(methodisch) 살아간 사람[체계적으로 형성된 합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수도승뿐이었고, 따라서 금욕이 한 개인을 강하게 사로잡으면 잡을수록 그는 더욱더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갔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스러운 삶은 바로 세속적 윤리의 극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최초로 배척한 것은 루터였고 칼뱅주의는 단지 그것을 루터로부터 물려받았을 뿐이다. 이미 세바스찬 프랑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교인이 일생동안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러한 신앙의 핵심을 찌른 말이다. 세속적 일상생활에서의 금욕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벽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수도생활에 자신의 최선의 대표자들을 공급해 왔던 정열적인 진지함을 내면에 갖춘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 직업생활 안에서 금욕적 이상을 추구하도록 되었다.(p.95/S.119-120)

3.1.2.2.2 금욕적 이상의 공유: 종교적 귀족주의

(e3.1.2.2.2.1) 가톨릭과 칼뱅주의는 루터주의 등에서 보이는 감정지향적인 신비주의를 함께 비판한다. 즉 감정이나 기분을 통한 신과의 합일 체험은 명백히 기만일 뿐이며,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톨릭과 칼뱅주의는 구원에 대한 객관적 결과물을 필요로 하였다는 점과 신비주의와 대립되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톨릭과 칼뱅주의 모두 금욕적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수도회 등 가톨릭의 사제들 역시 금욕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원에서는 철저한 금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금욕의 짐을 덜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수도원 밖의 금욕이란 성립되기 어려웠다. (p.91) 가톨릭의 ‘방법적 생활’(das methodische Leben, the methodical life)이 수도원의 골방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S. 118/p.94), 가톨릭 신도들은 칼뱅주의 청교도주의자들보다 덜한 긴장과 경건함 속에 살았다. 수도원에 한정된 금욕을 루터를 통해 현세적으로 변모시킨 칼뱅주의는 ‘복음의 권고’를 축출하고 “모든 그리스도 교인이 일생동안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버는 가톨릭을 탈세속적 혹은 정신적인 종교적 귀족주의로, 칼뱅주의를 세속적인 종교적 귀

족주의로 이름 붙인다. 요컨대 칼뱅주의는 윤리의 기초를 예정설에 둬으로써, 현세를 넘어선 피안에서의 수도승 같은 종교적 귀족주의를 대신하여 세속 내에서의 태고로부터 신에 의해 예정된 성도들의 종교적 귀족주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q3.1.2.2.2.2) 칼뱅주의는 [금욕적 이상의] 발전과정에서 적극적인 것을 추가했다. 즉 세속적 직업생활에서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이로써 칼뱅주의는 종교적으로 지향된 광범한 층의 사람들에게 금욕에의 적극적 동인을 제공했고 자신의 윤리를 예정설에 근거시킴으로써 수도승의 탈속세적인 종교적 귀족주의를, 영원한 과거로부터 신에 의해 예정된 성도들의 세속적인 종교적 귀족주의로 대체시켰다. 변경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 이 귀족주의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버림받은 여타의 인간들과 원칙적으로 메울 길 없고 밀이 보이지 않는 소름끼치는 심연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외면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중세의 수도승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서 모든 사회적 감각에 예리하게 패여 있는 심연이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 그리고 성도가 갖는 신의 은총에서 보자면 이웃의 죄에 대해 자신의 약점을 고려하여 동정적으로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표시를 가진 신의 적으로서 증오와 경멸을 보내는 것이 적합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각이 때로는 강화되어 상황에 따라서는 분과형성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이는 실제로 - 17세기 ‘독립파’의 경우처럼 - 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버림받은 자를 교회에 의해 율법에 복종시킨다는 순수한 칼뱅주의 신앙이, 부활을 얻지 못한 자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석하고 심지어 - 임명된 목사로서 - 성례를 주재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되어 버린 경우에 발생하였다.(p.95-6/S.120-1)

3.2 칼뱅주의 이외의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형태

(e3.2.1)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금욕주의적 형태와 비(非) 금욕주의적 형태로 대별되며, 전자에는 칼뱅주의를 비롯하여 네 개의 교파가 포

함된다. 이 네 교파는 칼뱅주의, 경건주의(der Pietismus), 감리교라 불리는 메서디즘(der Methodismus), 그리고 침례교 교파들을 가리킨다. 요컨대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는 칼뱅주의적 금욕주의와 비(非)칼뱅주의적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른바 ‘종파’를 형성한 이 네 개의 교파들이 — 베버는 교회(Kirche)와 종파(Sekte)를 명백히 구별하여 쓰고 있는데, 교회와 종파 간의 끊임없는 마찰은 서구 기독교의 한 특성을 보여준다. 우리말 표현의 뉘앙스와는 달리, 베버에 있어서 감리교나 침례교 교파는 ‘교회’라기보다는 ‘종파’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금욕적 직업윤리를 향해 단일한 방향을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q3.2.2)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적 담당자는 네 가지로 대별된다.

1. 칼뱅주의가 특히 17세기에 자신의 주요 전도지역에서 취했던 형태, 2. 경건주의, 3. 메서디즘[감리교], 4. 침례교 운동에서 발생한 교파. 이 운동들은 서로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비(非)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와의 분리도 엄격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p.73/S.84)

참고 : 교회와 종파

(e3.2.3) 1904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인들의 종교 생활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베버는 1906년 4월 『프랑크푸르터 차이퉁』에 2회에 걸쳐 하나의 논문을 썼다. (『종교사회학 논문집』 1권의 첫 논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이어 실린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은 바로 이 글을 수정하고 대폭 확대한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후속편이자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 이 논문에서 베버는 어떻게 하여 종교개혁의 교의들과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의 도덕적 가르침들이 많은 사회 집단의 성원들에게 공통되는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베버는 ‘종파’ 공동체를 연구하였는데, 이는 베버 종교사회학에 사용되는 여러 이념형들 중 하나로서 종교 조직의 분류에 매우 유용하다. ‘교회’란 원래 기부금재단처럼 신의 은총을 체계적으로 조

직하고 나누어주는 종교적 집단과 같은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교회의 성원은 원칙적으로 출생 등에 의해 자동적, 의무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원의 종교적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반면에 ‘종파’란 원칙적으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어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양영진, 「베버 종교사회학 저술들의 내적 연관성」,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민음사, p.364-5) 다시 요약하자면, 종파란 교리상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속이 상징하는 지위로 인하여 차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교회와는 다르다. 가령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속한 것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반면, 종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서만 입회할 수 있으며 탈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김은영, p.30)

3.2.1 경건주의

3.2.1.1 칼뱅주의와의 관계

(e3.2.1.1.1) 경건주의(pietism, 敬虔主義)란 17세기 말경 독일 루터파 교회의 정통주의적 고정화(固定化) 경향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적 종교운동을 가리킨다. 경건주의는 초기에는 정통파와 느슨하게 결합되어 그 차이도 거의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17세기말 슈페너의 지도로 루터주의에 합류하여 루터주의 교회 내부의 운동으로 머물게 되었다. 베버는 경건주의 지도자들로 슈페너 이외에 프랑케, 친첸도르프 등을 거명하고 있다. 경건주의는 예정설을 기본 교리로 삼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는 칼뱅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경건주의는 칼뱅주의적 금욕주의와 유사하게 방법적이며 체계적인 생활, 곧 금욕적 직업윤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건주의는 칼뱅주의와 비교해 볼 때, 종교 이론상으로 철저하지 못한 결합을 지니고 있었다. 이 경건주의가 칼뱅주의와 루터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측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q3.2.1.1.2) 경건주의는 영국과 특히 네덜란드의 칼뱅주의적 토대 위에서 처음 성장한 것으로 정통파와의 유대를 눈에 띄지 않게 끊어 가다가, 17세기 말경에 슈페너의 영도 아래서 루터주의에 흡수되어 교리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경건주의는 교회 내부의 운동이었는데, 단지 친첸도르프를 추종하면서 후스파와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아 모라비아 형제단에 합류한 일파(헤른후트파)만이 [...] 교파형성을 하게 되었다.(p.73-4/S.84) // 역사적으로 예정사상은 보통 ‘경건주의’라 불리는 금욕적 종파의 출발점이었다. 이 운동이 개혁파 교회에 머물렀던 한에서 경건주의적 칼뱅주의와 비경건주의적 칼뱅주의 간에 분명한 선을 긋는 거의 거의 불가능하다. (p.101/S.128) // 어쨌든 우리의 특수한 관점에서 보건대 경건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방법적으로 지향되고 통제된,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 방식이 칼뱅주의적인 아닌 신앙의 영역에서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주의는 이러한 합리적 금욕을 생소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독일 경건주의 교리에 철저함이 결여된 것은 그로부터 연유된 남침의 결과였다.(p.104/S.135)

(q3.2.1.1.3)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관점으로 독일 경건주의를 고찰한다면, 그것의 금욕주의가 종교적으로 정초되는 데 있어 칼뱅주의의 철두철미한 결과에 현저히 못 미치는 동요와 불확실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루터주의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 신앙의 감정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적 요소를 루터주의와 대립시켜 경건주의에만 특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지나친 단견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p.108/S.143)

3.2.1.2 경건주의의 난점

(e3.2.1.2.1) 독일의 경건주의는 그 금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칼뱅주의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루터의 영향과 신앙의 감정적 성격이 잔존함으로써 칼뱅주의에 비해 생활의 합리화가 훨씬 낮았다는 점이 그 차이 중의 하나다. 경건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직업 노동을 통한 객관적인 결과물이 아닌, 감정적 체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경건주의는

일반적인 개혁파신도의 경우에 비해 종교의 감정적 측면의 생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는 칼뱅주의와는 기원상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중세적 종교의식의 한 형태와 내면적으로 친밀하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경건주의의 실천적 종교의식은 내세의 확신을 얻기 위한 금욕적 투쟁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있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그리하여 칼뱅주의적 미덕과는 다른 경건주의적 미덕이 자리 잡게 된다. 즉 경건주의에서는 직업 노동에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획득되어야 할 자기 확신 대신에, 루터식 고해제도의 산물인 겸손과 연약함이 미덕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칼뱅주의적 미덕 혹은 직업윤리는 부르주아적 엄격성과 정직, 적극성을 강조하였다면, 독일 경건주의의 미덕 혹은 직업윤리는 겸손과 연약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건주의에 길러진 덕성들은 충실한 관리, 종업원, 노동자, 가내공업자들의 것이었고, 아울러 경건한 겸손을 가진 가부장적 고용주들의 것이었다.

(q3.2.1.2.2) 그러나 칼뱅주의와 비교한다면 생활의 합리화가 갖는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영원한 미래를 보증하는 구원은 항상 새로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내적 동인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현재로 향해졌기 때문이며, 선택된 자들이 부단하고 결실 있는 직업노동에서 항상 새로이 획득해야 할 것으로 여겼던 자기 확신 대신에, 부분적으로는 순수하게 내면적 체험을 향한 감정적 흥분의 결과이자 또 부분적으로는 경건주의가 누차 심한 의혹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대개는 인정했던 루터주의적 고해제도의 결과인 저 겸손과 존재의 연약함이 들어섰기 때문이다.(p.109/S.143-4) // [...]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청교도의 종교적 생활방식과 이러한 감정적 경건주의 사이에는 무수한 중간단계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이가 낳은 실천적 결과 중 하나를 감정적으로나마 특징지어 본다면, 경건주의가 육성한 덕은 한편으로 ‘직업에 충실한’ 관리, 종업원, 노동자, 가내공업자 등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신을 만족시키는 겸손한 태도의 가부장적 고용주를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칼뱅주의는 부르주아-자본주의 경영자의 엄격하고 정직하고 적극적인 정신에 보다 가까운 듯이 보인

다. (p.110/S.144-5)

3.2.2 메서디즘

3.2.2.1 메서디즘의 특성

(e3.2.2.1.1) 우리말로는 감리교 또는 감리회라고도 불리는 메서디즘(Methodism)은 1729년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교파이다. 메서디즘은 18세기 중엽 영국 국교회 속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창립자들의 의도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내부에 금욕적인 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 메서디즘은 특히 미국으로의 전파 이후에야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되었다.(p.73) 메서디즘은 칼뱅주의 및 경건주의와 더불어 금욕적 성격을 공유한다.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메서디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생활의 방법적인 조직화를 강조한다. 이 방법은 특히 ‘회개’라는 감정적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여기서 독일 경건주의와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베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유사성은 한편으로는 예정설의 후퇴에서 유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메서디즘 창시자들이 ‘오직 신앙만’이라는 구호를 강력히 부활시킨 데서 유래하였다.(p.238 주156 참조)

(q3.2.2.1.2) 감정적이면서도 금욕적인 신앙을, 칼뱅주의적 금욕의 교리적 토대에 대한 점증하는 무관심이나 거부와 결합시킨 것은 대륙 경건주의의 영국, 미국 분파인 메서디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미 그 이름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생활 방식을 ‘방법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분파의 문제는 체계화였고, 또한 종교적 추구의 중심점으로서 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메서디즘이 분명하게 갖고 있는 독일 경건주의 일정 종파에 대한 유사성은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특히 ‘회개’의 감정적 작용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p.110/S.145-6)

(q3.2.2.1.3) 우선 감정적인 것에 불과한 모든 것을 기만이라 배척한 칼뱅주의와 달리 성령의 증거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와 순수하게 느껴진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 확신이 원칙적으로 구원 확신의 유일하게 분명한 근거로 간주된다.(p.111/S.146)

(q3.2.2.1.4) 회개의 정서적 작용은 방법적으로 유도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이 이루어진 후에는 친첸도르프의 감정적 경건주의의 방식에 따라 신과의 합일을 경건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기된 감정은 그 즉시 합리적인 완전성 추구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정서적 성격을 갖기는 했으나 독일 경건주의식으로 내면적인 감정적 기독교로 귀결되지는 않는다.(p.113/S.149)

3.2.2.2 메서디즘의 난점

(e3.2.2.2.1) 메서디즘은 경건주의가 그러하듯이 칼뱅주의에 비해 금욕적 직업윤리가 취약하다. 베버에 따르면, 웨슬리가 형제단을 통해 받은 루터주의적 영향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했고 메서디스트 윤리의 종교적 기초가 갖는 불확정성을 가증시켰다. 결론적으로 메서디즘은 경건주의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q3.2.2.2.2) 예정설의 추종자였던 메서디스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금욕적인 생활 방식 자체에서 부단히 새롭게 증명되는 은총 의식에서 직접적인 은총 감정과 완전성 감정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이었다. 첫째, 약한 천성을 가진 신도의 경우 ‘기독교도의 자유’를 반(反)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방법적 생활방식이 약화되는 것이거나 아미여 둘째로 그러한 결론이 거부되는 경우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성별(聖別)의 확신이 고양되는 것이다. 이는 청교도적인 유형의 감정적 양양이다. 신도들은 반대자들의 공격에 직면해서 한편으로 성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증명의 불가결성을 점차 강조하여 이 결론을 부정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론을 운동 내부에서 은총의 상실가능성을 설교한 반(反)칼뱅주의적인 웨슬리의 노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밀고 갔다. 형제단을 매개로 해서 웨슬리에게 전해진 강한 루터주의적 영향은 이러한 발전을 강화

시켰고 메서디스트 윤리의 종교적 기반이 갖는 불안전성을 가중시켰다. [...]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메서디즘은 그 윤리에 있어 경건주의와 마찬가지로 취약하게 정초된 형성물로 여겨진다.(p.112-3/S.147-9)

3.2.3 침례교 계통의 교파들

3.2.3.1 칼뱅주의와의 관계

(e3.2.3.1.1)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형태로서 베버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침례교 및 그 운동과 직접, 간접으로 유관한 교파들(메노파, 웨이커교 등)이다. 칼뱅주의와 침례교는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양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p.74)

(q3.2.3.1.2) 유럽 대륙의 경건주의와 영·미의 메서디즘은 그 사상 내용으로 보나 그 역사적 발전으로 보나 제2차적인 현상이다. 그와 달리 칼뱅주의를 제외하고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주의를 독자적으로 담당한 두 번째 교파는 침례교와 16세기와 17세기에 그로부터 직접 유래했거나 그 종교적 사고형식을 채택하여 발생한 교파들인 침례교, 메노파, 그리고 특히 웨이커교 등이다. 이들은 그 윤리가 개혁파 교회와는 원칙적으로 이질적인 토대에 서 있는 종교 공동체이다.(p.114/S.150-1)

3.2.3.2 침례교 교파의 금욕주의의 한계

(e3.2.3.2.1) 베버는 침례교 및 그 계통의 교파들이 세속적 금욕을 강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다른 교파들과 마찬가지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의 체계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다. 특히 종교재판이나 다름없는 개인생활에 대한 교회의 감독은 구원을 향한 개인의 합리적, 금욕적 노력의 힘을 방해했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중상주의적 규제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나 ‘자본주의 정신’은 발전시

킬 수 없었던 것처럼, 금욕에 대한 과도한 교회의 통제와 규제도 마찬가지로
지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q3.2.3.2.2) 개인생활에 대한 교회의 경찰적 감시는, 이것이 거의 중
교재판에 비견될 정도로 시행되었던 칼뱅주의 국가교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방법적 구원 획득을 위한 금욕주의적 추구에 의한 개인적
힘의 해방을 방해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방해했다. 마치
국가의 중상주의적 통제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해도 적어도 그것만으
로는 자본주의 ‘정신’ — 오히려 중상주의 정책이 경찰적-권위적 성격을
취하는 경우 그 정신을 마비시켰다 — 을 고무시킬 수 없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금욕에 대한 교회의 통제에 의해서도 그 통제가 지나치게 경찰적
으로 발달된 경우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즉 그러한 통제는 일정한
외면적 태도는 강요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적 생활방식을 위한 주관
적 동인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이 점을 논한 때는 항상 국가교회의 권위
적인 도덕통제와 자발적 복종에 입각하는 종파의 도덕통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침례파 운동이 그 모든 분파에 있어 근본
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종파’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여하튼 그들의 금욕을
강화시켰고, 이는 —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 실제로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칼뱅주의, 경건주의, 메서디스트 교단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p.120-1/S.161-2)

3.3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

3.3.1 가장 큰 죄로서의 시간의 낭비

(e3.3.1.1) 베버는 칼뱅주의에서 유래된 영국 청교도주의가 금욕적 프
로테스탄티즘의 직업 관념에 관해 가장 일관되고 철저한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면서(p.123), 청교도 윤리의 대표자인 리처드 박스터(Ri-
chard Baxter: 1615-1691)의 주저의 내용을 빌려 금욕주의와 자본주
의 정신 사이의 관계, 혹은 전자가 후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른바 청교도운동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스터의 저작으로서 베버가 주로 원용하는 것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Saints' Everlasting Rest*)와 『기독교 지도서』(*Christian Directory*)이다. 박스터의 이러한 저서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내세에 있는 것이기에, 현세의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기 위해 ‘낮 동안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의 낭비는 중죄 중의 중죄가 된다. 시간이 더없이 귀중한 이유는 낭비된 시간만큼 신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스터에 의하면 자기 직업에 태만한 자일수록 신을 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 시간을 신을 위해 쓰지 않는 자들이다.

(q3.3.1.2) 실질적으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은 재산을 갖고 휴식하는 것, 부를 향락하여 태만과 정욕을 낳고 특히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에서 이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산이 최악시된 것은 오직 그것이 이러한 안주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었다. 왜냐 하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내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낮 동안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태만과 향락이 아니라 오직 행위만이 분명하게 계시된 신의 뜻에 따라 신의 영광을 더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 낭비는 모든 죄 중에 최고의 중죄이다. 인생의 기간은 각자의 부르심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사고, ‘무익한 잡담’, 사치 등을 통한 시간 낭비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만큼 - 6시간에서 최고 8시간 - 을 상회하는 수면 시간에 의한 낭비는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비난을 받는다. 물론 프랭클린의 경우처럼 “시간은 돈이다.”라고까지 할 수 없었지만 그 말도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된다. 즉, 시간은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왜냐 하면, 낭비된 모든 시간은 신의 영광에 봉사하는 노동에서 감해지기 때문이다. (p.125/S.166-8)

3.3.2 금욕의 수단으로서의 노동

(e3.3.2.1) 박스터의 저작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대한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설파되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은 우선 금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서양의 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동이 금욕의 수단으로서 널리 인정돼 왔다. 특히 노동은 “청교도주의가 ‘부정한 생활’이라는 개념 아래 총괄시킨 모든 유혹”에 대한 독특한 예방수단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의혹과 소심한 자기 질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식, 채식, 냉수욕 외에도) “네 직업노동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 설파되었던 것이다.(S.170)

(q3.3.2.2) 이처럼 박스터의 주요 저작에는 엄격하고 부단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에 대한 여러 차례 반복되고 때로는 열정적이기까지 한 설교가 관통 하고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동기가 함께 작용한다. 첫째, 노동은 오래 전부터 인정된 금욕적 수단이다. 서양의 교회에서는 동양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승려 규칙과 달리 오래 전부터 노동을 금욕 수단으로 평가 해왔다. 노동은 특히 청교도주의가 ‘부정한 생활’이라는 개념 아래 총괄시킨 모든 유혹에 대한 특수한 예방이며, 그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p.126/S.169)

3.3.3 삶의 자기 목적으로서의 노동

(e3.3.3.1) 그러나 노동은 단지 금욕의 수단이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신이 지정한 삶의 자기 목적”이라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는 신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욕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신에 의한 구원의 은총이 결여돼 있다는 말과 같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바울의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 부유한 자들이라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 섭리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준비했으며,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 노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q3.3.3.2) 그러나 노동은 그 이상의 것이며 무엇보다도 신이 지정한 삶의 자기 목적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바울의 명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만민에게 적용된다. 노동 의무의 결핍은 구원받지 못함의 징후이다. // [...] 부자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가 가난한 자와 함께 복종해야 하는 신의 율법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는 만민에게, 아무 차별 없이 만민이 인식하고 일해야 하는 직업(소명)을 마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직업은 루터주의에서와 같이 인간이 적응하고 만족해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날기 위해 신이 각자에게 부과한 명령이기 때문이다.(p.126-7/S.171-2)

3.3.4 신의 명령으로서의 부의 추구: 이윤추구의 섭리적 해석

(e3.3.4.1) 청교도는 신이 이윤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신의 의도이므로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기회를 사용하여 신의 부르심, 즉 소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베버는 박스터를 인용하여,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 부유해지도록 노동해야 한다는 청교도적 관념을 설명한다. 여기서 부의 추구가 사악한 것으로서 위험시되는 것은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일 경우에만, 즉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로 한정된다. 신을 위한 경우라면 부의 추구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게는 명령되는 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윤추구에 대한 섭리적 해석이 명백해진다.

(q3.3.4.2) 어떤 직업의 효용성과 그에 대응하는 신의 만족은 물론 첫째로는 도덕적 척도에 따라, 그리고 둘째로는 거기서 생산될 재화가 ‘전체’에 대해 갖는 중요성의 척도에 따라 평가되지만, 셋째로 직업의 효용성과 그에 대한 신의 만족을 평가하는 사경제적 ‘수익성’이 실천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관점이다. 왜냐 하면, 청교도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삶의 구석구석에 작용하고 있으며, 신이 그의 신도들 각각에게 하나의 이윤의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신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그 기회를 사용하여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야만 한다. “만일 신이 너에게 너의 영혼이나 타인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지시하는데, 네가 이를 마다하고 적은 이익을 주는 방법을 따른다면, 너는 네 소명(calling)의 목적 하나에 역행한 것이며, 신의 대리인(집사)이 될 것을 거부한 것이며, 신의 선물을 받아 신이 요구할 때 그 선물을 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당연히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이렇게 부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협시된 것일 뿐이며, 부의 추구도 그것이 나중에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된 것이다. 반대로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다.(p.129-130/S.175-6)

3.3.5 기업가의 활동의 정당화

(e3.3.5.1) 신을 위한 경우라면 모든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신에 의해 “명령된 것”이다. 돈은 증식되어야 한다.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병들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행위는 당연히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나태의 죄악이며 형제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베버에 따르면 중세의 윤리는 구걸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탁발승단에서는 그것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또한 걸인들은 유산자들에게 보시를 통한 선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여 그들조차도 하나의 신분으로서 간주되어 대우를 받기도 했다.(p.142) 이처럼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바로 구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직업의 금욕적 의의를 강조한 것은 근대의 전문화된 직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듯이 이윤추구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근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했다. 영리활동은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 할 수 있다.

(q3.3.5.2)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빈곤해지려는 것은 빈번히 논증되었듯이 병들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한 바람은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확고한 직업의 금욕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근대적인 전문 직업을 윤리적으로 신성시했듯이, 이윤 기회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기업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영주의 고상한 방종과 벼락부자의 과시적 허세는 모두 금욕주의가 증오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직하게 자수성가한 부르주아는 대단한 윤리적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신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성공적으로 신의 섭리를 수행한 성도(聖徒)에 대한 상용어이다. (p.130/S.176-7)

3.3.6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 문제

(e3.3.6.1) 베버에 따르면, 영리활동을 ‘소명’으로 보는 것이 근대 기업가의 특징이라면 노동을 ‘소명’으로 보는 것도 근대 노동자의 특징이다.(p.143) 요컨대 종교적 금욕의 힘은 근대적 기업가에게 건전하고 양심적이며 아주 근면한 노동자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세에서의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신의 섭리의 특수한 작용이라는 흡족한 확신”을 그에게 제공했다. 이런 맥락에서 칼뱅도 “노동자와 수공업자 대충은 오직 빈곤한 경우에만 신에게 복종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직업으로서의 노동의무의 이행을 통한 신의 나라에 대한 배타적 추구하고 교회 규율이 당연히 무산계급에 강제했던 엄격한 금욕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p.143)

(q3.3.6.2) 신의 충만한 은총 안에 있고 분명한 축복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진 부르주아 기업가는, 형식적 정당성과 도덕적 품행의 한계를 지키고 자신이 부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

신의 영리적 관심을 따를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 그 외에도 종교적 금욕의 힘은, 기업가들에게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대단한 노동 능력을 가진 동시에 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노동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을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이 종교적 금욕의 힘은 현세에서의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신의 섭리의 특수한 작용이라는 흡족한 확신을 제공했다. 이 섭리는 특수한 개별적 은총과 이러한 차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 이미 칼뱅도 종종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즉 ‘민중’, 다시 말해 노동자와 수공업자 대중은 오직 빈곤한 경우에만 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인들(피터 드 라 쿠르 등)은 이 말을 ‘세속화’시켜서 대중은 오직 빈곤에 의해서만 노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동기를 이와 같이 규정한으로써 저 임금의 ‘생산성’에 대한 이론이 나타난 것이다.(p.141-2/S.198-9)

3.3.7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미친 영향

(e3.3.7.1)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마무리 부분인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2장 2절)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세적,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간의 상관관계, 혹은 전자가 후자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및 ‘영향’과 관련된 내용 전체를 요약해줄 만한 베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논의도 마무리 해보자.

(q3.3.7.2)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 낭비적 향락에 반대해 왔고 소비, 특히 사치재 소비를 봉쇄해 버렸다. 반면에 이 금욕은 재화 획득을 전통주의적인 윤리의 장애에서 해방시키는 심리적 결과를 낳았으며, 이익 추구를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직접 신의 뜻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익 추구에 대한 질곡을 뚫고 나왔다. 욕욕과 외적 재화에의 집착에 대한 투쟁은 청교도 외에도 웨이커교의 위대한 호교론자인 버클리도 입증했듯이, 합리적 영리 활동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재산의 비합리적 사용에 대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합리적 사용은, 특히 신의 뜻에 따라 개인과 전체의 생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리주의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피조물 신격화로 비난된, 봉건적 감각에 맞는 파시적

형태의 사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서 나타난다. 합리적 사용은 재산가에게 고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산가가 그의 재산을 필요하고 실천적으로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었다.(p.136/S.190-1)

(q3.3.7.3) 사경제적 부의 생산이라는 면에서는 금욕은 부정직함뿐만 아니라 순수한 본능적 소유욕과도 투쟁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소유욕은 ‘탐욕’, ‘배금주의’ 등으로 비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궁극목적으로 삼는 부의 추구이기 때문이었다. 소유 그 자체는 유혹이다. 그러나 여기서 금욕은 “항상 선을 원하면서도 항상 악을 — 소유와 그 유혹이라는 의미에서의 악 — 낳는” 힘이었다. 왜냐 하면, 금욕주의는 구약 성서에 따라 그리고 ‘선행’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똑 같이, 물론 목적으로서의 부의 추구를 비난받아야 할 가장 큰 악이라 배척하면서도 직업 노동의 열매인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종교적 평가는 부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세속적 직업 노동을 단적인 최고의 금욕적 수단이자 동시에 거둬낸 자에 대한 또는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명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이 책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 부르는 생활관의 확장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소비의 봉쇄를 영리 추구의 이러한 해방과 관련시킨다면, 그 외적인 결론, 즉 금욕주의적 절약 강박을 통한 자본 형성은 쉽게 얻어질 수 있다. 벌어들이는 것의 낭비는 막는 것이 투자 자본으로서의 생산적 사용을 야기시킨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p.137/S.191-3, 일부수정)

참 고 문 헌

(1) 원전판본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us :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1, J. C. B. Mohr, Tübingen, 1920.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 Parson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76.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88.

(2) 관련 연구서(논문 및 단행본)

Giddens A., 『막스 베버의 정치사회학』, 김성건 역, 대영사, 1981.

Henrich, D., 『막스 베버의 과학 방법론』, 이상률 역, 이삭, 1983.

Löwith, Karl, 『베버와 마르크스』,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2.

Novak, M.,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허종렬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4.

Smith, A., 『베버와 하버마스』 김득룡 역, 서광사, 1991.

Tenbruck, F.,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차성환 편역, 문학과 지성사, 1990.

Weber, Marianne, 『막스 베버의 생애』, 조기에 역, 삼성문화재단, 1975.

강신준, 이상률 공편역, 『마르크스나 베버냐』 홍익사, 1984.

- 김덕영, 『짐멜이나 베버냐? — 사회학 발달과정 비교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 김연숙,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재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6.
- 김은영, 「막스 베버의 종교윤리와 경제행동의 관련 해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재성, 「Max Weber의 경제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3.
- 박성환, 『막스 베버의 한국사회론: 유교적 가산제 비판』,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성환, 『막스 베버의 문화사회학과 인간학』, 문학과지성사, 1992.
- 배동인 외,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민음사, 1995.
- 송기섭,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칼빈주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 안선희, 「베버의 근대성 개념: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유석춘(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1992.
- 전성우, 『막스 베버 역사 사회학 연구』, 사회비평사, 1996.
- 차인석, 「사회인식과 가치 — 베버와 마르크스」, 『철학사상』 제1권, 1991.
- 최문환, 『웨버』, 지문각, 1966.

(3) 부록: 베버의 저작 한국어 번역서

-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박성환 역, 문학과지성사, 1997.
- 막스 베버, 『막스 베버 선집』, 임영일, 차명수, 이상률 공편역, 까치, 1991.
- 막스 베버,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방법론』, 전성우 역, 사회비평사, 1997.
- 막스 베버, 『문화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 염동훈 역, 일신사, 2003.
- 막스 베버, 『사회경제사』, 조기준 역, 삼성출판사, 1982.
- 막스 베버, 『사회과학논총』, 양희수 역, 을유문화사, 1998.

- 막스 베버, 『세계의 대사상 12』, 권세원 역, 미문출판사, 1972.
- 막스 베버, 『야훼의 사람들』, 진영석 역, 백산출판사, 1989.
- 막스 베버, 『유교와 도교』,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0.
- 막스 베버, 『웨버의 학문과 정치론』, 죄문환 역, 대한교과서, 1963.
- 막스 베버, 『음악사회학』, 이건용 역, 민음사, 1993.
- 막스 베버, 『이해사회학의 카테고리』, 김진욱 역, 범우사 2002.
- 막스 베버, 『지배의 사회학』, 금종우, 전남석 공역, 한길사, 1981.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4.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금종우 역, 서문당, 1976.
- 막스 베버, 『탈주술화의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전성우 역, 나남, 2002.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권세원, 강명규 공역. 일조각, 1958.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양희수 역, 을유문화사, 1980.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 박종선 역, 도서출판 세계, 1987.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1988.
- 막스 베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의 선출』, 이남석 역, 책세상 2002.
- 막스 베버, 『힌두교와 불교』, 홍윤기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팡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18 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